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8 | No.167



해외 경제 동향

대외 여건 동향 |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국내 경기 | 고용 | 물가 | 금융·외환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 서비스산업

지역별 동향

개관 | 지역별 동향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8 | No. 167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 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3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국내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5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8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2
(1) 생산	42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9
(1) 생산	49
(2) 고용	50
(3) 수출	52
2. 지역별 동향	53
(1) 수도권	53
(2) 충청권	55
(3) 호남권	57
(4) 대경권	59
(5) 동남권	61
(6) 강원·제주권	63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3. 8 | No.167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146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지난 6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혼조와 선행지수 하락 등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불투명
 - 미국 경제는 올해 2분기 중 소비 둔화(전기비 1.6%)에도 투자 확대(10.8%)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전년동기비 2.6%,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
- 일본은 5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유로존도 국내 실물지표들이 미약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 부진을 시사
 - 일본은행(BOJ)은 7월 회의에서 수익률곡선관리(YCC) 유연화 조치(국채 10년물 금리 상한 0.5% → 1%)를 통해 현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국내 인플레이 둔화 속에 향후 추가 금리 인상 폭에 관심
- 중국은 6월 생산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투자와 소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는 등 내·외수 여건의 약세를 시사
 -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7.1%)를 하회하는 6.3%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 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하향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미국	실질GDP ¹⁾	5.9	2.1	2.6	2.0	2.4				
	산업생산	4.4	3.4	-0.6	-0.1	0.2	0.1	0.6	-0.5	-0.5
	소매판매	18.2	9.7	0.1	1.1	0.0	-0.9	0.4	0.5	0.2
	무역수지 ²⁾	-841.6	-951.2	-213.5	-201.0	-208.2	-60.6	-74.4	-68.3	-65.5
일본	실질GDP	2.2	1.0	0.1	0.7	-				
	광공업생산	5.8	0.0	-1.7	-1.8	-	0.3	0.7	-2.2	-
	소매판매	2.0	2.6	1.2	2.5	-	0.3	-1.1	1.4	-
	무역수지 ²⁾	-1,784	-19,966	-5,662	-5,185	-	-759	-436	-1,382	-
유로	실질GDP	5.3	3.5	0.4	-0.1	-0.1				
	산업생산	8.8	2.2	-0.5	-0.2	-	-4.4	1.0	0.2	-
	소매판매	5.1	0.9	-1.0	-0.3	-	-0.4	0.0	0.0	-
	무역수지 ²⁾	98.5	-342.4	-64.1	-2.7	-	12.3	-8.0	-0.9	-
중국 ³⁾	실질GDP	9.1	3.0	2.9	4.5	6.3				
	산업생산	9.3	3.4	2.8	3.2	4.5	3.9	5.6	3.5	4.4
	소매판매	12.4	-0.8	-2.7	7.1	11.4	10.6	18.4	12.7	3.1
	수출(달러화)	29.7	7.1	-6.9	0.1	-5.4	14.3	8.0	-8.0	-13.9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 금융·유가

□ 8월 초 달러화 강보합,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7월 중 미 인플레이 지표 둔화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월초 하락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8월 초 피치사(社)의 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기조의 마무리 시사 발언 등 영향으로 강보합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1일
엔/달러	138.07	131.12	130.09	136.17	132.86	136.30	139.34	144.31	142.29	144.96
달러/유로	1.0406	1.0705	1.0863	1.0576	1.0839	1.1019	1.0689	1.0909	1.0997	1.0949
미 국채 (10년 만기)	3.61	3.87	3.51	3.92	3.47	3.42	3.64	3.84	3.96	4.15
WTI유	80.6	80.3	78.9	77.1	75.7	76.8	68.1	70.6	81.8	83.2
두바이유	80.2	78.7	79.3	81.3	76.8	78.9	72.1	76.1	85.6	86.8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달러화는 지난 7월에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2.9%와 2.8% 하락하고, 8월 초 현재까지 2.6%와 3.7% 상승
- 유가는 7월에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과 미 원유재고 감소세,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배럴당 80달러대로 상승하고, 8월 들어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에도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과 미국 EIA의 유가 전망치 상향 등으로 추가 상승
- WTI유와 두바이유 가격은 7월 중 각각 15.9%와 12.5% 상승하고, 8월 초 현재 기준 1.7%와 1.4% 추가 상승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6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4.4%로 증가세 유지

- 6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4%로 증가세 유지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5%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4.8%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4월	5월	6월
공업 전체		9.6	3.4	3.6	3.8	5.6	3.5	4.4
섬유	방직	7.5	-2.5	-6.6	-5.0	-7.4	-2.8	-5.0
	화학섬유	9.1	0.5	-1.0	3.9	13.5	11.5	10.5
화학	에틸렌	18.3	1.4	-1.0	3.8	17.9	7.1	-0.8
	플라스틱원료	5.8	1.0	1.5	3.7	7.9	5.4	6.8
	플라스틱제품	5.9	-3.2	-4.3	-0.7	0.6	-3.3	4.0
철강	선철	-4.3	-4.7	-0.8	2.7	1.0	-4.8	0.0
	조강	-3.0	-6.5	-2.1	1.3	-1.5	-7.3	0.4
	강재	0.6	-4.6	-0.8	4.4	5.0	-1.3	5.4
비철금속		5.4	1.0	4.3	8.0	6.1	5.1	6.1
기계	금속절삭기계	29.2	-7.3	-13.1	-2.9	-1.9	1.9	0.0
	소형트랙터	2.2	-17.3	-11.5	24.7	23.1	25.0	16.7
	대기오염방지설비	15.4	0.7	4.3	50.2	51.8	53.4	48.9
	발전설비	9.9	9.4	17.3	28.9	61.9	45.4	50.1
자동차		4.8	-2.1	3.4	6.1	59.8	17.3	0.8
조선		8.0	-11.1	-4.5	1.3	18.9	-4.4	6.6
전자	세탁기	9.5	-4.1	4.6	20.5	41.6	29.4	25.5
	냉장고	-0.4	-6.2	-3.6	13.3	29.7	28.4	21.4
	에어컨	9.4	1.1	1.8	16.6	12.1	18.3	25.2
	컬러TV	-3.6	5.8	6.4	5.1	14.3	10.9	5.4
	컴퓨터	22.0	-4.4	-8.1	-25.7	-21.3	-20.0	-25.7
	반도체	33.3	-6.3	-11.6	-3.0	3.8	7.0	5.7
	휴대폰	7.0	-2.7	-6.2	-3.1	-2.5	3.5	-1.6
서비스	화물운수	12.4	-2.2	-3.1	6.8	14.6	6.8	4.2
	여객운수	-14.1	-37.2	-37.2	56.3	141.1	109.9	53.2
	우편 ³⁾	25.1	6.0	4.5	-	-	-	-
	통신 ³⁾	27.8	22.7	21.3	17.1	16.4	15.7	16.7
	소매업	11.8	0.1	0.5	6.8	15.9	10.5	1.7
	음식숙박업	18.6	-7.7	-6.3	21.4	43.8	35.1	16.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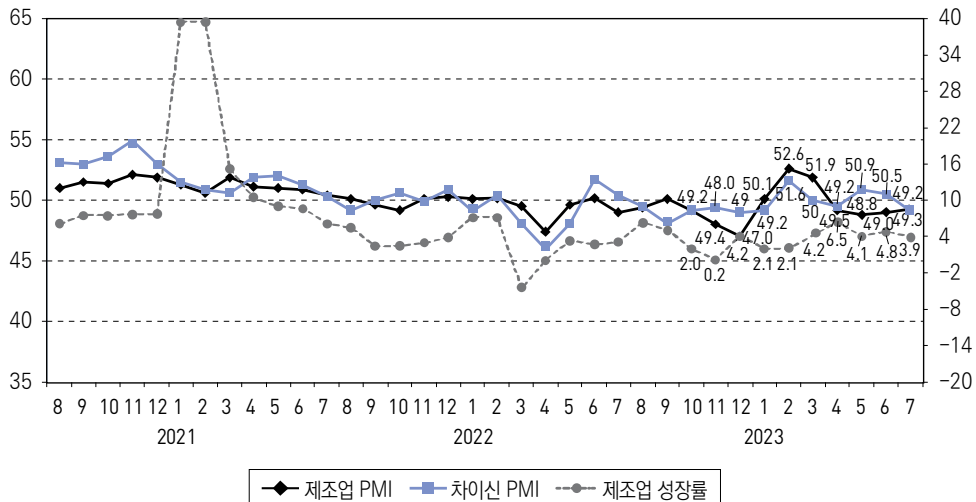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6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소유제와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여 국유기업은 전년동기비 5.4%, 민영기업은 3.2%, 주식제기업은 5.9% 수준
- 6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제조업 증가세가 유지되며 기계, 화학, 조선, 철강 등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경기 회복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증가세 축소
 - 섬유업종은 방직(-5.0%)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10.5%)는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학업종은 플라스틱원료(6.8%)는 증가세 유지, 플라스틱제품(4.0%)은 증가로 전환됐으나 에틸렌(-0.8%)은 소폭 감소세로 전환
 - 철강은 기저효과와 전방업종 생산 증가로 일부 품목이 증가세로 전환하여 강재(5.4%), 조강(0.4%)이 증가하였고 선철(0.0%)은 전년 동월 수준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비 생산량이 6.1%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기계업종은 발전설비(50.1%), 대기오염방지설비(48.9%), 소형트랙터(16.7%)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금속절삭기계(0.0%)는 전년 동월 수준 유지
 - 자동차는 소비 증가세 둔화와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0.8%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세 축소
 - 조선업은 기존 수주물량 인도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6.6% 증가
 - 전자업종에서 계절적 수요로 에어컨(25.2%) 증가세 확대, 세탁기(25.5%)와 냉장고(21.4%)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컬러TV(5.4%)와 반도체(5.7%)도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휴대폰(-1.6%)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컴퓨터(-25.7%)는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 서비스업 전반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로 소비 증가도 축소되어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증가세 축소
 - 작년 기저효과 축소와 경기 회복 둔화로 여객운수(53.2%)가 두 자릿수 증가로 증가세가 축소되었고, 화물운수도 4.2% 증가로 증가세 축소
 - 통신은 16.7%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
 - 소비 둔화로 인해 음식숙박업(16.1%)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세가 축소되었고 소매업(1.7%)도 소폭 증가에 그침.

□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관방치와 민간치 모두 기준치 이하

- 7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49.3으로 4개월 연속 기준치(50) 이하
 -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50.1
 -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49.5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48.2
 - 종업원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8.1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0.5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기준치(50)를 상회했지만,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기준치(50) 하회
 - 대형기업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여 50.3
 - 중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9.0
 - 소형기업은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47.4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7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지)는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9.2로 3개월 만에 기준치(50) 하회
 - 차이신(Caixin) PMI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 둔화와 제조업 여건이 위축되면서 1.3포인트 감소한 49.2로 기준치(50) 하회
 - 중국 내 시장상황의 부진으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여 신규 생산도 감소로 전환되었고 대외환경 악화로 글로벌 수요도 빠르게 축소되어 수출지수도 작년 9월 이후 최저치 기록
 - 고용지수는 시장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해고 증가로 인해 5개월 연속 감소
 - 물가지수는 금속 등 원자재의 상품가격 하락이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리면서 투입비용이 하락하고 경쟁 격화로 인한 가격 인하 전략으로 판매가격도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하려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 구매가 감소함에 따라 원자재 재고가 감소하여 완제품 재고는 소폭 증가했으며 여름철 일부 전력공급 부족과 재고 축소로 인해 배송시간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배송지수가 6개월 만에 악화
 - 기업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지만 2분기 들어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고 대내외 시장 상황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긍정적 기대 수치가 하락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기대

(2) 미국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9%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 계속
 -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동월비 12.0%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제조업 생산을 견인
 - 자동차·부품도 전년동월비 8.0% 증가하면서 전월에 이어 뚜렷한 증가를 보인 업종
 - 반도체·전자부품은 6.8% 증가를 기록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로 돌아선 추세 지속

● 반면 제지, 플라스틱·고무 등은 전년동월비 생산 부진 지속

- 특히 제지는 10.2%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전년동월비 생산 실적이 가장 부진한 업종
- 플라스틱·고무의 생산도 5.0% 감소하면서 작년 연말 이후 전년동월비 마이너스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
- 그 외 통신기기(-4.6%), 기계(-3.9%), 식품(-2.8%), 1차 금속(-0.5%) 등도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기록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전체	0.9	-1.1	0.8	0.1	-1.5	0.1	-0.8	-0.9
식품	1.1	-0.5	1.3	-0.5	-1.3	-0.5	-0.9	-2.8
제지	-3.0	-9.1	-7.2	-9.1	-9.1	-10.7	-9.7	-10.2
정유	-1.5	-4.6	-0.5	-1.7	-1.6	0.8	0.0	1.3
화학	-0.2	-4.5	0.1	2.3	0.7	1.1	0.4	1.5
플라스틱·고무	-1.7	-2.7	-1.7	-5.3	-5.4	-3.5	-5.6	-5.0
1차 금속	-5.9	-5.9	-1.9	-2.5	-2.1	0.3	-2.0	-0.5
가공금속	1.2	0.9	1.3	0.1	-1.0	0.4	-0.6	0.9
기계	6.4	1.0	2.9	0.5	-2.1	-0.1	-3.1	-3.9
컴퓨터·주변기기	12.7	9.9	14.9	9.5	10.8	14.7	12.3	12.0
통신기기	11.1	8.7	6.4	6.2	4.1	1.2	-2.0	-4.6
반도체·전자부품	-2.7	-4.7	-8.5	-1.8	-3.1	3.6	4.2	6.8
자동차·부품	4.4	7.6	4.7	10.0	1.5	9.3	11.1	8.0
항공우주	12.1	12.1	10.3	7.3	5.7	3.9	4.2	4.4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 수준

●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관찰

- 석탄·석유제품은 전년동월비 11.4% 감소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
- 전자부품·기기와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은 각각 전년동월비 8.6%, 7.6% 감소하면서 15개월, 17개월째 생산 감소 기록이 지속되는 상황
- 그 외 펄프·종이·가공품(-6.4%), 생산기계(-5.5%), 요업·토석제품(-4.3%), 금속제품(-4.1%), 플라스틱제품(-2.5%) 등 다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감소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22		2023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전체	-1.3	-2.1	-2.8	-0.5	-0.8	-0.7	4.3	0.1
강철·비철금속	-4.8	-8.0	-7.0	-3.2	-4.9	-4.9	-0.7	0.2
금속제품	2.3	-0.5	-1.7	0.2	-2.9	-4.3	0.4	-4.1
생산기계	3.3	5.0	-12.5	0.2	-0.2	-5.3	2.7	-5.5
범용·업무용 기계	0.3	-4.9	2.9	0.2	-7.1	-2.7	1.2	2.1
전자부품·기기	-12.6	-12.9	-16.4	-14.5	-19.4	-12.5	-12.1	-8.6
전기·정보통신기기	5.5	4.8	6.5	6.0	4.7	5.3	13.4	3.3
수송기기	-0.3	-1.6	8.6	7.1	15.0	16.3	38.7	16.1
요업·토석제품	-6.5	-8.9	-9.7	-6.2	-6.5	-7.1	-4.0	-4.3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6.0	-7.1	-7.3	-7.0	-8.1	-7.1	-5.9	-7.6
석탄·석유제품	3.2	-4.0	-1.7	0.1	0.1	0.6	-6.5	-11.4
플라스틱제품	-4.1	-5.6	-6.5	-3.7	-4.8	-3.7	0.1	-2.5
펄프·종이·가공품	-3.3	-3.1	-4.5	-6.0	-4.3	-5.1	-6.7	-6.4
식품·담배	-1.3	-0.5	-1.2	-0.6	0.0	-2.4	2.3	-1.1
기타 제조업	-1.5	-3.1	-2.9	-1.7	-3.6	-2.9	-0.5	-3.5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다만 수송기기를 비롯한 소수 업종에서는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
 - 수송기기 생산은 전년동월비 16.1%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증가 지속
 - 그 외 전기·정보통신기기와 범용·업무용 기계는 각각 전년동월비 3.3%, 2.1%의 생산 증가 기록

(4) 유로존¹⁾

□ 6월 유로존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0.5% 감소

- 6월 유로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및 식음료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감소하며 전년동월비 0.5% 감소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2	2023					
		1/4	2/4	3월	4월	5월	6월
제조업 전체	4.0	1.2	-0.6	-1.0	0.8	-2.1	-0.5
식음료	0.5	-0.7	0.3	-1.5	-3.1	1.2	2.7
섬유	-2.4	-8.8	-8.7	-8.6	-9.6	-9.9	-6.5
정유	3.6	0.1	7.8	-1.3	-6.4	-8.7	-8.2
화학	-7.0	-13.2	-9.9	-11.7	-10.8	-10.0	-8.9
고무·플라스틱	-2.3	-4.5	-5.3	-4.1	-6.2	-4.8	-4.8
1차 금속	-4.4	-4.8	-4.8	-1.8	-4.5	-3.8	-5.9
조립금속	-0.3	-1.9	-2.5	-2.0	-3.5	-1.8	-2.1
기계	4.4	3.8	-1.2	3.3	-0.6	-0.6	-2.1
통신기기	2.2	0.7	0.9	-0.1	-0.3	4.2	-0.8
전자부품	13.5	7.7	5.5	5.1	4.6	8.1	3.8
자동차	3.7	20.1	16.6	33.2	19.3	19.8	11.3
조선	1.5	4.7	1.1	8.2	-3.7	0.6	6.3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20개 국가.

- 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21.2%), 기초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12.8%), 화학섬유(-9.4%) 등의 부진으로 감소
- 섬유는 방직(-14.1%), 제직(-12.2%) 및 기타섬유(-5.2%)의 생산 감소로 6.5% 감소
- 정유는 코크스 오븐(-16.1%) 및 정유 제품(-10.1%)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8.2% 감소
- 반면, 자동차는 완성차(16.5%)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11.3% 증가하였고, 조선의 경우 선박 및 수상부유구조물(9.3%),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3.0%)이 확대되며 6.3% 증가
- 2분기 유로존 제조업 생산은 화학(-9.9%), 섬유(-8.7%), 고무·플라스틱(-5.3%)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비 0.6% 감소

Ⅱ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기비 0.6%, 6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1%

- 지난 2분기 국내 실질GDP 성장률이 소비와 투자, 수출의 동반 감소 영향에도 수입 급감에 따른 순수출(수출 - 수입) 확대에 힘입어 전기비 0.6%로 상승
 - 민간소비가 2분기 만에 감소(전기비 -0.1%)하고, 설비투자도 전 분기에 이어 추가 감소(-0.2%)한 데 이어, 수출 역시 감소(-1.8%)한 모습이나, 수입이 대폭 감소(-4.2%)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1.3%포인트)로 전환
- 6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감소로 전환(전월비 -1.0%)한 반면에, 서비스업이 4개월 만에 증가(0.5%)하면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추가 상승(0.1%)
 - 광공업은 반도체(3.6%)의 증가에도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등에서 상당폭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1.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0.6%), 숙박·음식점(0.5%)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소폭 증가(0.5%)
-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4.7%) 판매가 상당폭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기준 증가폭이 확대(1.0%)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0.2%)의 감소 전환에도 운송장비(1.6%)에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소폭이나마 증가(0.2%)
-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와 수입액 등의 감소에도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4.3	2.6*	1.4* (-0.3*)	0.9* (0.3*)	0.9**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6	4.1*	3.3* (-0.5*)	4.6* (0.6*)	1.5**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3	-0.9*	6.5* (2.4*)	5.9* (-5.0*)	3.9** (-0.2**)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2.8*	-1.8* (1.3*)	1.9* (1.3*)	2.2** (-0.3**)	-	-	-	-
전산업생산지수	5.3	4.6	1.9 (-1.4)	1.2 (0.7)	-0.3* (0.5*)	2.0 (1.1)	-1.0 (-1.3)	-1.1* (1.1*)	1.1* (0.1*)
광공업생산지수	8.2	1.4	-6.4 (-6.1)	-9.7 (-0.9)	-7.4* (3.1*)	-7.6 (4.7)	-9.1 (-0.7)	-7.6* (3.0*)	-5.6* (-1.0*)
제조업생산지수	8.4	1.4	-6.7 (-6.4)	-10.0 (-0.9)	-7.7* (3.4*)	-7.6 (5.1)	-9.3 (-0.7)	-7.9* (3.0*)	-5.8* (-1.1*)
서비스업생산지수	5.0	6.7	5.8 (0.2)	6.4 (1.2)	2.8* (0.0*)	6.0 (-0.4)	2.9 (-0.4)	1.9* (-0.3*)	3.5* (0.5*)
소매판매액지수	5.8	-0.3	-2.3 (-1.4)	-0.4 (1.1)	-0.3* (-0.4*)	0.1 (0.1)	-1.4 (-2.6)	-0.6* (0.4*)	1.4* (1.0*)
설비투자지수	9.6	3.3	9.6 (-0.2)	-0.5 (-8.8)	-0.5* (2.0*)	1.9 (-2.5)	4.2 (0.8)	-4.5* (3.5*)	-0.6* (0.2*)
건설기성액	-6.7	2.7	6.4 (4.9)	11.5 (4.6)	9.1* (-0.6*)	12.1 (-4.2)	12.4 (1.2)	6.1* (1.1*)	8.9* (-2.5*)
동행종합지수(2020=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3.8 99.0	108.3 100.5	108.9 100.1	108.8 99.2	110.2* 99.8*	109.5 99.6	110.0* 99.8*	110.3* 99.9*	110.4* 99.7*
선행종합지수(2020=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6.2 101.3	108.7 100.0	109.5 99.5	109.4 98.9	109.9* 98.6*	109.4 98.6	109.4* 98.4*	109.8* 98.5*	110.5* 98.8*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수 등이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를 제외하고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지수, 수출입물가 비율, 경제심리지수 등에서 상승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0.6%)

02 고용

□ 7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0.7% 증가

- 7월 국내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동반 확대된 가운데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하락(1.2% → 0.7%,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0.8%)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업	27,273	28,089	28,216	27,767	28,693	28,223	28,432	28,835	28,812	28,686
전년동기비	1.4	3.0	2.2	1.5	1.2	1.7	1.3	1.2	1.2	0.7
농림·어업	0.9	4.6	2.0	-1.6	-0.3	2.1	0.8	-0.9	-0.8	-2.5
제조업	-0.2	3.1	2.9	-0.8	-1.1	-1.1	-2.1	-0.9	-0.2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2.1	2.1	1.8	2.3	2.0	1.8	1.6	1.3
건설업	3.7	1.6	0.2	-1.0	-2.4	-1.0	-1.5	-3.0	-2.8	-2.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2.4	2.2	1.8	2.0	2.0	1.8	1.6	1.3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1.0	1.4	1.3	2.7	1.2	1.5	1.1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0	3.9	2.6	2.9	2.8	2.8	3.0	2.9	2.6	2.2
실업률(계절조정, %)	3.7	2.9	2.9	2.7	2.6	2.7	2.6	2.5	2.6	2.8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0.8% → -2.5%)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4개월 연속 둔화(1.6% → 1.3%)
-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2.8% → -2.0%)되고 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세도 3개월 연속 둔화(1.6% → 1.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4.5% → 5.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1% → 1.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0.7% → 1.2%)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7% → 4.8%)과 정보통신업(5.4% →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인해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8%로서 연초(2023년 1월 2.9%) 이후 최고치

03 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3%

- 7월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연료(전월비 -1.3%)를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0.8%), 음식·숙박(0.5%), 교통(0.4%) 등 다수 부문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전월비 0.1%(전년동월비 2.3%,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상승률,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2.5	5.1	5.3 (0.4)	4.7 (1.1)	3.2 (0.6)	4.8 (0.3)	4.2 (0.2)	3.7 (0.2)	3.3 (0.3)	2.7 (0.0)	2.3 (0.1)
근원물가	1.8	4.1	4.8 (1.2)	4.9 (1.3)	4.3 (0.9)	4.8 (0.3)	4.8 (0.2)	4.6 (0.4)	4.3 (0.4)	4.1 (0.2)	3.9 (-0.1)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국내 금융·외환

□ 7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8월 초(8월 1~11일) 금리 약보합, 원/달러 상승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계절요인과 은행들의 완화적 대출태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6월 +5조 5,000억 원 → 7월 +8조 7,000억 원, 대기업 +3조 8,000억 원, 중소기업 +4조 9,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이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과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달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출도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
 - CP·단기사채는 기업들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 기조로 전환되고, 회사채는 기업들의 만기 상환 등으로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좀 더 확대

기업 자금조달 및 은행 가계대출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21		2022		2023				2023년 7월 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원화대출	57.2	11.3	71.8	12.2	48.4	7.8	5.5	8.7	1,218.7
(대기업)	3.4	2.3	20.4	5.3	20.3	3.4	2.4	3.8	236.2
(중소기업)	53.7	9.1	51.5	6.8	28.1	4.4	3.1	4.9	982.5
<개인사업자>	23.7	4.2	16.1	2.0	5.0	0.8	0.2	1.5	447.7
회사채 순발행	15.1	1.5	-1.8	-1.5	4.0	-2.9	-0.8	-1.1	..
CP순발행	8.9	0.9	12.5	1.2	3.0	-3.7	-0.5	0.6	59.5
주식발행	16.5	1.8	19.6	0.7	3.1	0.3	0.4	0.6	..
은행 가계대출	51.3	9.7	-0.2	-0.3	10.1	4.2	5.8	6.0	1,068.1
주택담보대출	36.4	6.0	12.2	2.0	21.9	4.2	6.9	6.0	820.8
기타 대출	14.8	3.6	-12.5	-2.3	-11.7	-0.05	-1.2	-0.01	246.1

자료: 한국은행.

- 7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기타 대출도 전월 수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6월 +5조 8,000억 원 → 7월 +6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하고, 기타 대출은 고금리 기조와 분기 말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7월 중 연준의 금리 인상(25bp)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8월 초 피치사(社)의 미 국가신용 등급 하향(8월 1일)과 무디스의 미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8월 9일)에 따른 미 국채금리의 상승세 등으로 소폭 상승(8월 1일 3.647% → 8월 11일 3.698%, +0.05%포인트)
- 원/달러 환율은 7월 미국의 인플레이 둔화 발표와 중국의 부동산 지원 조치 발표 등으로 하락하고, 8월 들어 피치사의 미 신용등급 강등과 무디스의 미국 중소형 은행 신용등급 하향, 중국 부동산 우려 재점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8월 1일 1,283.8원 → 8월 11일 1,324.9원, +41.1원)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1	2022				2023			
	4/4	1/4	2/4	3/4	4/4	1/4	6월	7월	8월 11일
국고채(3년)	1.80	2.66	3.55	4.19	3.72	3.27	3.66	3.68	3.70
회사채(3년, AA-)	2.42	3.34	4.36	5.28	5.23	4.07	4.47	4.47	4.48
CD(91일)	1.29	1.51	2.04	3.24	3.98	3.59	3.75	3.74	3.69
CP(91일)	1.56	1.66	2.34	3.30	5.28	4.01	4.02	4.03	4.03
원/달러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274.6	1,324.9
원/100엔	1,030.2	992.7	946.5	993.3	953.2	981.4	907.0	908.3	909.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증가 기준.

05 수출입

□ 7월 수출 16.5% 감소, 수입 25.4% 감소, 무역흑자 약 16억 달러

● 지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5%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도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서 무역수지는 약 16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IT업황의 부진 지속 및 계절적 요인(하계휴가)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반도체·컴퓨터·선박 등 다수 품목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지역별로는 중국·베트남 등의 대세계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기준 전년 동월비 16.5% 감소

- 수입은 전년동기비 낮은 유가 등으로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감소(-47.0%) 하고, 반도체·철강 등의 수입도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

* 원유 수입은 도입단가(80.5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22.0%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이 20.8%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45.8% 감소한 약 62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6,444 (25.7)	6,836 (6.1)	1,590 (-10.0)	1,513 (-12.7)	1,558 (-12.0)	549 (-13.9)	495 (-14.4)	521 (-15.4)	542 (-6.0)	503 (-16.5)
수입	6,151 (31.5)	7,314 (18.9)	1,776 (3.1)	1,740 (-2.2)	1,597 (-13.0)	597 (-6.5)	522 (-13.3)	543 (-14.0)	531 (-11.7)	487 (-25.4)
무역수지	293	-478	-186	-226	-38	-47	-27	-22	11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7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III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5.8% 감소, 전월비 1.1%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10.8%), 기타운송장비(10.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반도체(-15.9%), 전자부품(-12.2%), 화학제품(-10.4%), 섬유제품(-6.4%), 1차 금속(-3.8%), 기계장비(-0.9%)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5.8%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5.9%)와 중공업(-5.7%), 경공업(-6.4%)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전년동월비 감소폭은 다소 둔화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3.6%)와 전자부품(9.7%), 기계장비(4.4%), 화학제품(2.3%)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12.9%), 석유정제(-14.6%), 섬유제품(1.3%), 1차 금속(-0.6%)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감소 전환(-1.1%)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99.9)는 반도체,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3%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3%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4%로 전월에 이어 11.3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2분기 기준 재고 증가폭(10.0% → 3.8%,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과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20)	2021	2022		2023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8.2	109.7	107.1	99.5	104.8	101.6	104.8	108.0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2	1.4	-6.4	-9.7	-7.4	-9.1	-7.6	-5.6	-1.0
제조업(원지수)	9,569.5	108.4	109.9	107.1	98.8	105.3	102.0	105.3	108.7	-
전년동기비 증가율	-	8.4	1.4	-6.7	-10.0	-7.7	-9.3	-7.9	-5.8	-1.1
섬유	113.4	2.0	-3.5	-10.1	-7.8	-8.8	-9.8	-10.2	-6.4	-1.3
화학	854.2	8.6	-9.9	-20.1	-20.4	-16.0	-20.1	-16.7	-10.4	2.3
철강	496.6	5.2	-8.5	-23.3	-6.5	-2.4	-1.4	-2.9	-2.8	0.7
반도체	2,023.8	26.8	7.6	-19.8	-33.8	-18.6	-21.6	-18.7	-15.9	3.6
컴퓨터·주변장치	32.4	27.5	11.0	10.8	0.7	-14.7	-20.3	-11.5	-12.3	-10.3
통신·방송장비	171.0	23.5	-5.1	-1.1	17.6	-12.6	-3.6	-18.3	-16.7	-4.0
의료·정밀·광학	217.2	17.8	6.6	5.9	-4.3	-13.8	-16.1	-17.1	-8.1	1.3
기계장비	737.3	12.1	1.1	5.4	0.7	-3.7	-4.2	-6.3	-0.9	4.4
자동차	987.5	6.3	9.1	17.5	21.6	15.4	16.9	18.7	10.8	-12.9
조선	66.0	-7.2	20.7	23.4	19.6	4.6	7.5	-1.0	7.7	5.4
중공업	-	9.9	1.5	-7.3	-10.7	-7.5	-9.3	-7.6	-5.7	-0.9
경공업	-	1.3	0.4	-4.0	-5.6	-8.4	-9.6	-9.4	-6.4	-2.3
제조업ICT	-	19.3	2.2	-19.7	-30.5	-19.2	-22.4	-19.3	-15.9	4.1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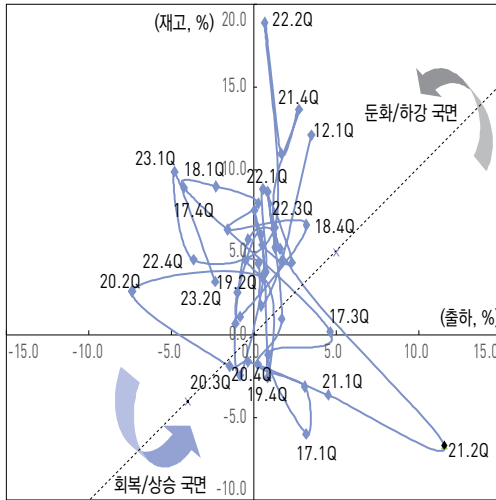
출하 감소폭(-6.8% → -2.1%)이 동반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

□ 자동차·기계·가전 수출 증가, 13대 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 동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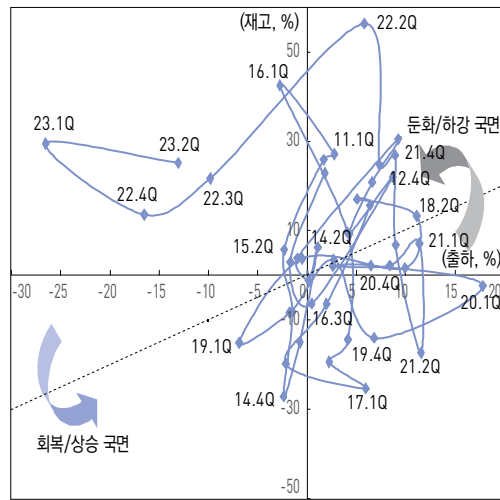
- 자동차와 기계, 가전 등 장비 관련 및 IT 일부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등 소재 관련 품목들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IT 다수 품목에서 동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수출 기준으로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재차 확대(6월 -6.0% → 7월 -16.5%)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 ~ 2023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자동차	24.2	16.4	29.0	43.9	49.0	63.6	40.3	49.3	58.3	15.0
자동차부품	22.2	2.4	-1.1	-3.7	1.0	-5.6	-1.6	-0.8	5.7	-0.5
선박류	16.4	-20.9	-22.6	1.9	21.1	-26.1	59.2	-47.9	98.6	-30.9
일반기계	4.6	2.0	-3.1	-2.0	5.7	-0.9	7.7	1.5	8.0	3.2
철강	36.9	5.7	-17.6	-15.8	-5.7	-10.9	-10.7	-8.9	3.1	-10.2
석유화학	54.8	-1.4	-25.1	-22.3	-24.1	-24.5	-23.5	-26.6	-22.3	-24.5
석유제품	57.7	64.9	18.0	-0.5	-35.0	-18.6	-29.0	-34.8	-40.8	-42.3
섬유	14.0	-4.0	-18.7	-15.1	-11.0	-12.1	-15.0	-15.0	-2.3	-15.4
가전	24.0	-7.4	-24.0	-8.5	-7.5	-8.3	-10.3	-13.7	3.3	2.5
무선통신기기	45.9	-10.4	-19.0	-12.8	-20.7	-42.5	-34.3	-12.1	-12.1	-15.3
컴퓨터	24.7	-4.7	-41.0	-61.9	-61.6	-57.6	-73.3	-57.5	-53.5	-33.4
반도체	29.0	1.0	-25.8	-40.0	-34.8	-34.5	-41.0	-36.2	-28.0	-33.6
디스플레이	18.9	-1.1	-20.2	-39.5	-16.5	-41.6	-29.3	-7.4	-11.1	-4.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7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2) 자동차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에 따른 영향으로 내수판매 감소 전환

- 7월 내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전년동월비 5.4% 감소하며 2022년 7월 이후로 첫 감소세 기록
 - 국산차 판매는 일부 업체의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과 개별소비세 변경에 따른 영향 등으로 6.1% 감소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친환경 자동차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1.3% 감소
- 7월 수출은 국산 차량에 대한 높은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전년동월비 10.6% 증가
 - 완성차는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미국과 EU,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15.0% 증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3	9.1	17.5	21.6	15.4	16.9	18.7	10.8	-
	생산(전기비)	-	-	-1.2	5.8	4.9	1.0	8.8	-12.9	-
	출하	5.3	8.0	15.9	21.5	17.5	14.6	20.7	17.2	-
	재고	-6.4	23.7	23.7	23.3	5.6	30.5	23.3	5.6	-
	가동률	1.8	5.6	11.3	13.0	4.7	5.5	7.8	1.0	-
	내수판매동향	-9.0	-2.2	9.5	15.6	7.3	4.6	5.7	11.6	-5.4
교역 동향	수출	23.6	11.8	19.3	27.9	33.8	27.5	33.2	41.3	10.6
	수입	10.2	8.0	28.7	18.9	23.3	20.2	5.5	46.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높은 글로벌 수요로 인한 해외 생산 및 판매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과 결합하며 보합세 시현
- 6월 생산은 지속된 수출 증가세와 내수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비 10.8% 증가
 - 친환경 자동차 판매 호조와 미국과 EU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이어지며 가동률은 1.0% 상승하였으며, 출하와 재고도 각각 17.2%, 5.6% 증가
 - 소형 승용차와 RV 차량 등의 생산 감소로 전월비 생산은 12.9% 감소

(3) 조선

□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출하, 가동률은 소폭 하락

- IMO MEPC 80차 회의에서 2050년까지 해운산업의 탈탄소화가 합의되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술력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기회로 작용
 - 2023년 7월 7일 IMO(국제해사기구)는 제80차 MEPC 회의에서 2050년까지 해운산업 탈탄소 목표치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7월에 수주한 31척의 선박 중 삼성중공업이 대규모로 수주한 메탄올 추진선 16척을 포함하여 29척이 친환경 선박
 -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에도 주요 조선소의 선별 수주가 지속되고 있어 클락슨 선가지수는 상승하여 172.6을 기록하였고, 이는 2008년 고가의 90% 수준
 - 한편, 6월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출하와 가동률은 소폭 하락했는데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며 가동률은 그대로이나, 생산 증가에 따라 재고가 증가하면서 출하는 감소
 -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7월 7일) 171.3 → (8월 4일) 172.6
 - * 누적 수주량: (2022년 7월) 1,169만 CGT → (2023년 7월) 694만 CGT
 - * 벌크선 운임지수(BDI): (7월 5일) 994.0 → (8월 4일) 1,136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SCFI): (7월 7일) 931.7 → (8월 4일) 1,039.3
- 7월 수출은 다수의 LNG운반선, 컨테이너선과 VLCC가 인도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전년동월 해양플랜트의 인도가 기저효과로 작용하며 30.9% 감소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7.2	20.7	23.4	19.6	4.6	7.5	-1.0	7.7	-
	생산(전기비)	-	-	8.3	1.3	-3.4	0.6	-4.0	5.4	-
	출하	-8.1	14.0	9.6	1.2	-6.6	-6.7	-10.0	-2.9	-
	가동률	-0.7	23.1	25.4	16.1	1.1	7.0	-2.7	-0.7	-
교역 동향	수출	16.4	-20.9	-22.6	1.9	21.1	59.2	-47.9	98.6	-30.9
	수입	6.1	-13.2	-2.4	-38.6	-15.7	-62.3	-28.5	36.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6월 수입은 생산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36.5% 증가하였는데, 선박과 선박용 엔진 및 부품이 수입 증가를 견인
 - 선박은 85.9% 증가하였는데 호주에서 수입한 여객선과 말레이시아, 쿠웨이트에서 탱커선, 일본, 중국, 브라질에서 화물선이 유입된 영향
 - 선박용 엔진은 46.0% 증가하였는데, 선박용 가스터빈은 미국, 독일, 일본, 핀란드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고, 선박용 압축점화엔진은 독일, 핀란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

(4) 일반기계

□ 생산 감소세 완화,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6월 생산은 내수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0.9%로 감소폭이 크게 개선되고, 전월비로는 2개월 연속 증가
 - 내수판매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최근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양호한 실적(8.0% 증가)을 기록하며 생산 감소세 크게 완화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2.1	1.1	5.4	0.7	-3.7	-4.2	-6.3	-0.9	-
	생산(전기비)	-	-	0.5	-8.9	-1.9	-7.9	6.7	4.4	-
	출하	11.6	0.3	4.9	-1.1	-0.9	-2.0	-3.9	3.0	-
	재고	18.3	20.1	20.1	27.5	10.3	17.1	16.7	10.3	-
	가동률	7.3	6.2	9.7	9.5	3.9	3.7	1.9	5.8	-
교역 동향	수출	4.6	2.0	-3.1	-2.0	5.7	7.7	1.5	8.0	3.2
	수입	9.6	0.7	-3.3	0.5	3.3	13.0	1.1	-3.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 일반기계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4월) -1.7 → (5월) -5.5 → (6월) -3.0
- *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4월) 12.3 → (5월) -4.1 → (6월) -3.9
-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3년 4월) 3.5 → (5월) -11.1 → (6월) 1.2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실적 개선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두 자릿수 재고 증가율 지속으로 제조업 평균(111.4%) 대비 약 20%포인트 높은 131.3% 기록
- * 재고율(%): (2023년 4월) 152.9 → (5월) 142.5 → (6월) 131.3
- 가동률은 내수판매가 부진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 지속
- 7월 수출은 주요국 산업용 생산장비 수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3.2% 증가한 44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신흥국, 중남미 지역 모두에서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
 - 대미 수출은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및 노후 인프라 교체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증가
 - 중동 및 아세안 지역 수출 역시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및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계류 수입 수요 확대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

* 7월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미국(8.3, 14.9%), EU(4.6, 12.8%), 아세안(5.0, 14.1%), 중남미(2.3, 17.4%), 중동(1.9, 32.6%)

● 6월 수입은 26억 3,3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3.5% 감소

- 주요 품목별로는 농기계(74.5%), 압연기·용접기·주조설비(43.6%), 섬유 및 화학기계(2.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54.4%), 운반하역기계(-32.3%), 제지인쇄기계(-15.1%) 등은 감소

(5) 철강

□ 내수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 지속, 단가 하락으로 수출은 감소세 전환

● 6월 철강생산은 국내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관련 철강재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8% 감소

- 수요산업 부진에 따른 내수 감소로 생산 및 가동률지수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비 생산은 소폭 증가

- 품목별로는 주요 건설용 철강재인 H형강, 철근, 중후판 등의 생산물량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열연강판, 용융아연도강판 등의 판재류 생산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철강재 계(1.0%), 봉형강류(-5.3%), H형강(-12.2%), 철근(-3.0%), 선재(-20.6%), 판재류(2.3%), 열연강판(5.4%), 중후판(-8.3%), 용융아연도강판(11.8%), STS핫코일(-46.3%), STS냉연강판(-23.3%), 전기강판(-26.3%), 강관(6.7%)

● 7월 수출은 수출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0.2% 감소

- 7월 철강재 수출단가는 톤당 1,217달러로 전월비 상승하였으나 전년도의 가격 강세로 인해 전년동월비 14.5% 하락

- 제품가격 하락과 아세안, EU, 중국의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 감소폭 확대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7월) 1,455 → (2023년 7월) 1,217(-14.5%)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아세안(-26.6%), 중국(-15.5%), 중동(-16.5%), 미국(-5.0%), EU(-5.5%)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2	-8.5	-23.3	-6.5	-2.4	-1.4	-2.9	-2.8	-
	생산(전기비)	-	-	-15.5	23.2	4.6	-2.1	0.1	0.7	-
	출하	4.5	-7.0	-13.5	-5.0	1.2	-1.5	-0.5	6.0	-
	재고	14.4	-9.8	-9.8	-2.2	-4.2	3.0	4.2	-4.2	-
	가동률	5.5	-8.7	-23.9	-7.0	-2.3	-1.5	-2.9	-2.7	-
교역 동향	수출	36.9	5.7	-17.6	-15.8	-5.7	-10.7	-8.9	3.1	-10.2
	수입	50.1	2.0	-17.8	-8.6	-13.7	-12.8	-17.6	-10.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6월 수입은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년동월비 10.1% 감소
 - 6월 철강재 수입단가는 톤당 1,020.1달러로 지난해 6월(1,237.9달러/톤) 대비 17.6% 하락하며 전월비 감소폭이 확대
 - 국가별로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11.9%), 일본(-12.0%), 미국(-49.1%) 등으로부터의 수입금액 감소가 이어지는 반면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38.7%의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품목별로는 냉연강판, 중후판 및 선재의 수입물량이 전년동월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철근 및 용융아연도강판의 수입은 증가세 전환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1.9%), 일본(-12.0%), 미국(-49.1%), 인도(38.7%), 베트남(-1.9%)
 -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냉연강판(19.4%), 중후판(15.5%), 열연강판(-0.4%), H형강(-41.4%), 철근(3.6%), 선재(11.3%), 용융아연도강판(9.4%)

(6) 정유

□ 수출은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 영향으로 2개월 연속 40% 이상 감소

- 6월 생산은 국내 정유사의 정기보수로 인해 6.5%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12.3% 축소
 - 내수는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는 확대된 반면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비 2.6% 감소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44.4%), 휘발유(23.1%), 경유(13.8%), 윤활유(26.2%), 아스팔트(28.7%), 나프타(-5.3%), 병커C유(-4.9%), LPG(-7.5%)
 - 수출물량은 휘발유 및 경유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커C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1.4%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LPG(2364.9%), 병커C유(69.4%), 나프타(34.1%), 아스팔트(1.7%), 항공유(-0.9%), 경유(-1.3%), 휘발유(-9.4%), 윤활유(-21.8%)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7	1.8	-2.1	0.2	1.7	0.0	11.7	-6.5	-
	생산(전기비)	-	-	-3.2	0.4	2.2	-1.0	9.3	-14.8	-
	출하	-0.7	2.3	-1.1	4.4	5.1	4.3	4.7	6.5	-
	재고	12.6	-2.5	-2.5	-7.2	-12.3	-4.8	18.8	-12.3	-
	가동률	1.8	1.9	-2.0	0.5	1.6	-0.2	11.6	-6.8	-
	내수판매동향	7.0	1.1	-2.0	-3.0	-2.6	-4.8	-5.0	2.4	-
교역 동향	수출	57.7	64.9	18.0	-0.5	-35.0	-29.0	-34.8	-40.8	-42.3
	수입	86.0	10.9	-20.1	-13.9	-28.9	-39.9	-25.7	-19.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7월 수출액은 물량 및 단가 동반 하락으로 3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42.3% 감소
 - 수출액은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며 2개월 연속 40% 이상 하락
 -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2년 7월) 103.1 → (2023년 7월) 80.5(-22.0%)
 - *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2년 7월) 1,079 → (2023년 7월) 736(-32.5%)
 -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2년 7월) 63.9 → (2023년 7월) 36.9(-42.3%)
 - 지역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및 아세안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전년동월비 크게 감소
 -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일본(9.5), 미국(-9.2), 중국(-38.4), 아세안(-58.1), 중동(-69.5), 중남미(-77.8)

(7) 석유화학

- 국내 공급 과잉 폭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 증가로 주요 수출시장 내 국산제품 시장점유율 하락
- 6월 석유화학제품 국내 생산 및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10.4%, 2.1% 감소했고 가동률도 하락(-11.6%)
 - 6월 중 국내 NCC 업체들의 에틸렌 톤당 스프레드는 251달러로 전월(256달러) 대비 소폭 감소하며 생산시설 가동률 하락을 견인
 - * 당초 6월 중순 재가동이 예정되어 있던 YNCC와 LC화학 생산설비 가동시점이 연기되며 국내 시장 공급 과잉 폭이 축소되는 모습
 - 중국 리오프닝이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나, 3분기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수요 증가 기대
 - 동아시아 시장 내 여름철 페트(PET)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 및 수출용 PX 제품 생산량은 증가세 지속
- 7월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수출단가 하락과 주요 시장 내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비 24.5% 감소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8.6	-9.9	-20.1	-20.4	-16.0	-20.1	-16.7	-10.4	-
	생산(전기비)	-	-	-4.9	1.6	0.2	0.7	-2.7	2.3	-
	출하	6.1	-9.5	-16.7	-13.6	-8.4	-11.7	-10.6	-2.1	-
	재고	21.9	-3.9	-3.9	-2.5	-6.4	-4.4	-6.0	-6.4	-
	가동률	8.2	-10.1	-18.9	-18.9	-14.3	-15.2	-15.9	-11.6	-
교역 동향	수출	54.8	-1.4	-25.1	-22.2	-24.1	-23.5	-26.6	-22.3	-24.5
	수입	36.1	-2.3	-21.4	-16.7	-20.6	-19.5	-19.2	-23.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동월 국제유가와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22% 및 24% 하락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2년 7월) 103.1 → (2023년 7월) 80.5(-22.0%)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2년 7월) 1,549 → (2023년 7월) 1,185(-24.1%)

- 중국발 범용제품 수출량이 증가하며, 중동 및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 중국 내 Sinopec Hainan, PetroChina Jieyang, Shanjing Chemical 등 신증설 생산설비발 공 급물량 증가

- 미국 시장 내 전방산업 업황 부진 및 자국산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미국향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

- 인도 내 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며 국산 석유화학 중간재 수출이 소폭 증가한 반면, 플라스틱 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향 수출액은 감소

* 7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비): 중국(-14.5%), 아세안(-29.4%), EU(-15.9%), 인도(8.6%), 미국(-57%), 일본(45%)

(8) 섬유

□ 국내외 경기 침체로 내수·수출 둔화가 지속되며 업황 부진

- 6월 생산은 주요국 및 국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미 금리 인상 등 악재 속에서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감소세 지속
 - 내수 패션시장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해외 여행 급증으로 해외 직구매에 밀려 더욱 침체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6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류 소매판매액지수도 감소세 지속
 -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4월) -3.2% → (5월) -4.1% → (6월) -2.2%
 - * 의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전년동월비): (4월) -4.1% → (5월) 2.8% → (6월) -1.7%
 - 품목별 생산은 편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난 가운데 편물은 기능성 소재의 내수 확대로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사 및 화학섬유는 큰 폭의 감산 지속
 -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4월) -18.1% → (5월) -12.4% → (6월) -10.1%
 - * 원사(전년동월비): (4월) -5.9% → (5월) -8.3% → (6월) -17.6%
 - * 직물(전년동월비): (4월) -2.9% → (5월) -8.0% → (6월) -6.2%
 - * 편물(전년동월비): (4월) -7.4% → (5월) -21.1% → (6월) 9.8%
 - * 염색가공(전년동월비): (4월) -21.9% → (5월) -14.4% → (6월) -5.9%
 -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4월) -38.3% → (5월) -42.3% → (6월) -29.6%
- 7월 수출은 주요국 의류 소비 위축으로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해외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이 크게 줄어들며 감소세 지속
 - 미국, EU의 의류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의류 벤더 소싱공장 오더가 급감하면서 해외 생산기지향 의류 소재 수출이 타격
 - 대중 수출은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소비가 일부 회복하면서 6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7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
 - * 7월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2년 7월) 10.3(-9.9%) → (2023년 7월) 8.7(-15.4%)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1	-3.2	-9.2	-8.8	-12.9	-15.3	-13.6	-9.4	-
	생산(전기비)	-	-	0.7	-6.3	-3.3	-5.6	-4.1	-4.1	-
	출하	3.8	-5.7	-10.8	-6.6	-12.2	-13.6	-10.9	-12.1	-
	재고	-5.7	-0.1	-0.1	1.1	-3.9	0.6	-1.4	-3.9	-
	가동률	7.7	5.3	-4.4	-5.5	-9.2	-12.4	-10.5	-4.4	-
교역 동향	수출	14.0	-4.0	-18.7	-15.1	-11.0	-15.0	-15.0	-2.3	-15.4
	수입	12.9	8.8	-5.3	-0.8	-6.6	-7.4	-10.3	-1.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7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아세안) 2.0(-26.0%), (베트남) 1.2(-25.1%), (중국) 1.0 (-6.7%)

* 6월 섬유 수출단가/증가율(달러/g): 5.3(-4.2%)

* 6월 중국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1.3(4.7%)

(9) 가전

□ 기저효과와 선진국 수요 회복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세 유지

● 6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9.0% 감소, 전월비로는 3.7% 감소

-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내수 감소세 둔화 및 수출 증가로 감소폭은 완화
- 영상음향기기 생산은 판매 호조로 증가로 전환, 조명기기 생산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가전 생산 부진으로 전체 생산은 감소세를 유지
-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지속적인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가동률은 하락세를 유지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5.3	-13.3	-19.1	-17.0	-21.5	-19.7	-9.0	-
	생산(전기비)	-	-	-7.0	5.1	-0.9	-1.0	4.3	-3.7	-
	출하	-10.3	-0.6	-8.4	-12.2	-15.3	-20.8	-21.0	-2.6	-
	재고	1.2	-5.3	-11.0	-8.7	-8.2	-13.8	-5.9	-4.8	-
	가동률	1.3	-9.6	-21.1	-16.1	-13.3	-17.4	-15.8	-6.1	-
교역 동향	수출	24.0	-7.4	-24.0	-8.5	-7.5	-10.3	-13.7	3.3	2.5
	수입	19.1	-5.0	-14.5	-10.2	-5.7	-9.4	-4.8	-2.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선진국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월비 2.5% 증가
 - 전년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수요 회복으로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 * 7월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2021년) 29.7 → (2022년) -22.2 → (2023년) 2.5
 - * 7월 1~25일 주요국 수출증가율(% , 전년동월비): 미국(13.5), EU(5.7), 일본 (9.9)
 -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안정화,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이 긍정적 요인
- 6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2.9% 감소했으나, 내수 감소세 완화로 감소폭이 점차 둔화하는 양상
 - 내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1, 2위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은 감소세를 유지
 - 반면 말레이시아(헤어드라이어,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진공청소기)와 필리핀(음향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전자)은 해외 브랜드 제품 수입 및 국내기업 역수입 증가로 각각 전년 동월비 110.8%, 80.1% 증가

(10) 무선통신기기

□ 2분기 ICT 제품 경기 하강 지속, 7월 수출 전년동월비 15.3% 감소

- 1분기 및 2분기 각각 전년동기비 12.8%, 20.8% 감소한 수출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 지연으로 7월에도 15.3% 감소
 - 2023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감소가 전망되나, 3분기 재고 소진이 예상되며 2024년 회복세 전망이 우세
 - * IDC(2023. 7)에 따르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7.8% 감소하였으며 2024년 초입 전후 수요 회복 기대
 - * 가트너(2023. 6)는 2024년 스마트폰 시장이 5.9% 회복할 것으로 전망
- 6월 생산 및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16.7%, 10.6% 감소
 - 수출 부진으로 재고는 27.3% 증가하였으며, 가동률은 21.0% 하락
 - * IDC(2023. 7)는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2억 6,530만 대 수준으로, 현재까지 8분기 연속 감소 중으로 집계
 -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7)에 따르면 최대 고급형 제품 시장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동기비 24% 감소
 -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 감소 상황에서도 폴더블폰 시장은 성장 전망
 - * IDC(2023. 7)는 2023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카운터포인트리서치(2023. 7)에 따르면 1분기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비 약 64% 증가한 250만 대 정도이며, 지역별로 중국 내 출하량은 117%, 북미에서는 43% 증가
- 6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비 3.6%(전월비 1.1%) 증가했으며, 가입자 기반 단말 회선은 웨어러블 기기 회선 수 증가(34.9%)에 힘입어 11.0% 증가
 - 사물지능통신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27.7%, 전월비 5.1% 각각 증가
 - * 차량관제, 원격관제, 무선결제 기기 회선 수는 각기 26.2%, 31.3%, 13.7%의 큰 폭 증가
- 6월 수입은 휴대폰 및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동월비 19.1% 감소
 -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에 더하여, 국내외 주요 기업의 프리미엄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대기수요가 증가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3.5	-5.1	-1.1	17.6	-12.6	-3.6	-18.3	-16.7	-
	생산(전기비)	-	-	-3.1	16.0	-28.6	11.6	-16.9	-4.0	-
	출하	25.0	-2.1	3.1	12.7	-5.5	0.5	-6.0	-10.6	-
	재고	0.1	5.8	5.8	32.1	27.3	9.9	14.8	27.3	-
	가동률	28.7	-6.1	-15.5	10.2	-17.4	-8.2	-24.2	-21.0	-
교역 동향	수출	45.9	-10.4	-19.0	-12.8	-20.8	-34.3	-12.1	-12.1	-15.3
	수입	17.2	-7.2	-20.2	-3.8	-25.2	-27.8	-28.1	-19.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무선중계기 수입은 19.4% 감소했으며, 위성방송수신기와 방송용통신기기 수입은 각각 22.2%, 54.6%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산업 경기 전망 불투명

- 6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15.9% 감소하였으나, 전기(월)비는 3.6% 증가하여 전체적인 생산은 줄어들었어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
 - 2/4분기 생산은 세계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전년동기비 18.6% 감소하였으나, 전월비 생산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및 유지되면서 안정세
 - 6월 출하가 15.6% 증가하고 재고 증가율은 49.1%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감산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7월 수출액은 74억 4,3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33.6% 감소하였고 장기간의 증가세가 꺾인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6.8	7.6	-19.8	-33.8	-18.6	-21.6	-18.7	-15.9	-
	생산(전기비)	-	-	-15.8	-10.7	20.6	4.2	2.5	3.6	-
	출하	21.5	0.5	-17.5	-32.9	-11.5	-33.5	-20.5	15.6	-
	재고	27.1	15.9	15.9	42.5	49.1	79.1	80.7	49.1	-
	가동률	6.0	-3.4	-28.1	-39.5	-25.0	-27.9	-24.9	-22.4	-
교역 동향	수출	29.0	1.0	-25.8	-40.1	-34.8	-41.0	-36.2	-28.0	-33.6
	수입	22.1	21.8	7.7	-10.4	-16.8	-15.9	-14.5	-19.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 6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며 향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7월에 다시 감소하여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
- 반도체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장기간 증가하였으나,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최근 7개월 연속 감소 중
- 세계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요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 대폭 감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PC,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기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수출도 대폭 감소하며 국내 수출에 악영향

(12) 디스플레이

□ 패널 단가 하락으로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 지속

- 6월 생산은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패널 수요 둔화로 감소세 지속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7	-14.7	-26.3	-33.0	-21.0	-39.9	-19.9	-12.2	-
	생산(전기비)	-	-	-7.7	-9.6	3.1	-4.1	0.2	9.7	-
	출하	-9.5	-17.5	-29.0	-30.5	-20.1	-24.7	-33.1	-0.7	-
	재고	38.5	-24.9	-24.9	-30.3	-40.1	-24.3	-11.5	-40.1	-
	가동률	-7.3	-6.5	-8.2	0.3	17.8	3.8	16.8	33.8	-
교역 동향	수출	18.9	-1.1	-19.9	-39.5	-16.5	-29.3	-7.4	-11.1	-4.6
	수입	-12.8	30.9	31.2	-22.1	-19.7	-26.4	-23.3	-9.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5월 및 6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7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스마트폰, TV의 수요 축소로 인한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 감소로 생산은 전년동월비 12.2% 감소
- 단,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신제품 발매에 따라 하반기 패널 수요 확대 및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이는 디스플레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
- TV용, 노트북용 OLED 패널 수요가 신제품 효과로 인하여 확대될 전망으로 대형 OLED의 기반 확대도 예상
- 7월 패널 수출은 LCD 수출 부진으로 4.6% 감소하였으며, 14개월 연속 감소세
 - LCD 수출은 공급 확대에 의한 패널 가격 하락으로 15.2% 감소하였으며, 11개월 연속 감소 중
 - OLED 수출은 스마트폰용 패널 수요 부진에 따라 0.4% 소폭 감소
 - 중국 내 프리미엄 제품 수요 축소로 인한 대중국 수출이 30.2% 감소하여 전체 수출이 감소

(1) 생산

□ 6월 생산, 전년동월비 3.5% 증가

- 6월 생산은 3.5%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지난달에 이어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이 호조세를 이어갔으며, 서비스산업 내 비중이 큰 도·소매는 2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숙박·음식점은 감소세가 지속
- 서비스산업 중 생산, 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3.8%)의 실적 호조에 따라 증가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은 완성차 판매 실적 증가에 따라 자동차 판매업이 14.3%,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도 13.4% 증가
 - 반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0.4% 증가에 그쳤지만 세부업종 중에서는 건축자재 도매업(17.5%)의 실적이 크게 개선
 - 소매업(자동차 제외)도 0.1%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식료품 소매업(5.0%)이 큰 증가세를 보인 반면,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15.0%)은 크게 악화되며 업종별로 큰 편차 발생
- 운수·창고업은 수상운송업(-5.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2%)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업(103.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7%)의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7.4% 증가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육상 여객 운송업이 3.4% 감소하였으나, 철도운송업(6.5%), 도로화물 운송업(14.0%)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호조세가 지속
 - 항공운송업은 항공화물 운송업이 22.6% 감소한 반면,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항공 여객 운송업이 103.3%로 크게 증가하며 여객운송 부문이 실적 개선을 주도
-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은 0.2% 감소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5.0%)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 기록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4월	5월*	6월*
서비스 총지수	100.0	105.2	112.4	111.8	115.7	113.9	114.9	118.2
상승률	-2.0	5.2	6.8	6.1	2.5	2.9	1.9	3.5
전기비	-	-	-	1.2	0.0	-0.4	-0.3	0.5
도·소매	-2.6	5.3	2.6	1.9	-1.7	-2.6	-1.4	1.1
운수·창고	-14.1	4.2	17.7	17.3	9.3	12.3	8.4	7.4
숙박·음식점	-18.4	1.9	16.9	16.3	-2.7	1.7	-4.9	-4.5
정보통신	1.5	12.2	1.8	-1.7	-4.1	-3.1	-5.4	-3.7
금융·보험	14.0	8.0	8.4	10.7	9.2	9.4	8.3	10.1
부동산	5.5	2.3	7.9	4.1	3.2	2.5	3.2	3.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2.8	2.0	1.9	2.4	1.1	1.7	4.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8	2.3	5.2	5.6	3.7	5.4	2.9	3.1
교육	-4.5	1.5	1.2	1.1	0.2	-0.6	-0.1	1.2
보건·사회복지	1.5	5.1	7.2	5.7	3.5	3.1	3.9	3.5
예술·스포츠·여가	-32.6	15.4	44.8	16.0	6.7	12.7	0.0	9.2
협회·수리·개인서비스	-8.3	1.9	4.4	13.8	5.6	4.6	3.8	8.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2	2.3	-4.7	0.4	-1.7	-4.2	-2.2	1.5
지식서비스	3.1	6.0	4.7	4.6	3.2	3.0	2.6	3.9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숙박업은 일반숙박시설인 호텔업과 여관업이 각각 6.3%, 3.5% 증가하여 기타 숙박시설업의 감소세를 다소 완화함에 따라 실적 감소세가 둔화
-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은 음식점업 -5.6%, 주점업 -20.1%로 대부분의 업종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
- 정보통신업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6.3%)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실적이 악화되며 3.7% 감소

- 특히 정보서비스업(-24.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10.7%)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8.5%), 보험 및 연금업(18.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9.2%) 등 모든 업종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며 10.1% 증가
 - 금융업은 은행 및 저축기관이 7.9%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보험업, 재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위 업종의 증가세를 주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들의 실적이 소폭 증가하며 각각 4.0%, 3.1% 증가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각각 1.2%, 3.5% 증가 기록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고등 교육기관 4.7%, 기타 교육기관이 7.7% 증가한 반면, 일반 교습학원은 3.1%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세부적으로 보건업은 2.4% 증가에 그쳤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3%로 크게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2.4%로 소폭 증가한 반면,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25.4%로 크게 증가하며 5월 이전의 증가세를 다시 회복
- 지식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업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3.9% 증가

(2) 고용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0만 5,000명(2.0%) 증가

- 6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4월	5월	6월
총취업자 수	18,866	19,173	19,752	19,788	20,314	20,177	20,412	20,352
증감률	-1.3	1.6	3.0	2.4	2.2	3.2	3.5	2.0
전기비	-	-	-	-0.5	2.7	0.7	1.2	-0.3
도·소매	-4.4	-4.3	-1.2	-2.0	-1.2	-1.4	-1.0	-1.9
운수·창고	3.6	7.0	4.4	-2.1	-1.6	0.2	0.0	-1.3
숙박·음식점	-6.9	-2.1	4.0	9.0	6.4	9.3	9.0	6.0
정보통신	-1.6	6.4	8.9	6.4	4.9	5.5	6.7	6.1
금융·보험	-2.7	2.8	-3.3	1.5	2.1	0.8	2.8	1.6
부동산	-7.0	2.7	4.0	-0.4	-3.6	-0.7	-1.3	-5.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6	4.7	5.7	3.4	8.0	7.0	10.3	7.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7	3.7	1.9	-0.6	0.1	1.8	-0.3	-0.6
공공행정·국방	3.3	2.8	6.1	3.1	1.2	4.8	3.1	0.5
교육	-4.6	2.3	3.4	0.1	0.9	1.0	1.7	2.4
보건·사회복지	5.9	8.5	7.1	7.8	5.3	7.0	7.2	5.3
예술·스포츠·여가	0.3	-5.8	3.2	6.0	9.5	8.3	11.0	10.1
협회·수리·개인서비스	-3.5	-4.5	-1.4	2.5	0.4	2.6	1.8	-0.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2.9	10.5	-8.9	-13.9	-3.3	-11.1	-3.2	-9.6
지식서비스	0.2	5.4	5.0	4.3	4.3	4.7	5.8	4.7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통신,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등의 증가로 40만 5,000명, 2.0% 증가하였으며, 지난달 대비 6만 명, 0.3% 감소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 7,000명(5.3%) 증가하며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13만 1,000명(6.0%)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작년 10월 이후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가 매월 10만 명 이상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9만 6,000명, 7.5%), 정보통신(6만 명, 6.1%), 예술·스포츠·여가(4만 9,000명, 10.1%), 교육서비스(4만 6,000명, 2.4%), 금융·보험(1만 2,000명, 1.6%)도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지난달에 이어 10만 명에 육박하는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하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
 - 금융·보험은 작년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올해 초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증가폭도 1분기에서 2분기로 갈수록 다소 확대
- 도·소매업은 6만 3,000명(-1.9%), 운수·창고업 2만 1,000명(-1.3%), 부동산업 2만 9,000명(-5.1%) 감소
 - 도·소매업은 올해 2월을 정점으로 완화되던 감소폭이 다시 크게 확대되며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취업자 수 감소폭을 기록
- 지식서비스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36만 1,000명(4.7%) 증가

(3) 서비스수지

□ 6월 서비스수지 26억 900만 달러 적자

- 6월 서비스수지는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여행수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건설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며 26억 900만 달러 적자
 - 운송수지가 크게 개선되며 흑자로 전환하였지만, 대부분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되거나 또는 흑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
- 운송수지는 운송수입이 3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지난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해상운송수지의 적자 규모가 지난달 대비 크게 감소하며 전체 운송수지의 흑자 전환을 주도
 - 분기별로는 1분기 대비 2분기 적자 규모가 약 1억 8,0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2022년 2분기와 대비하여 51억 달러 이상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연간	1/4	2/4	4월	5월	6월
서비스수지	-16,190	-3,108	-5,548	-7,203	-4,725	-1,205	-911	-2,609
가공서비스	-5,685	-5,115	-6,048	-1,653	-1,553	-540	-500	-514
유지보수	-913	-1,006	-1,621	-419	-424	-112	-163	-149
운송	2,132	15,427	13,121	-118	-292	32	-345	21
여행	-5,630	-6,226	-7,929	-3,235	-2,594	-499	-819	-1,276
건설	4,770	4,100	5,253	1,068	1,440	332	675	433
보험	-336	-295	40	1	-189	-51	-73	-65
금융	1,757	1,647	310	113	592	182	194	217
지식재산권사용료	-3,034	-3,059	-3,751	-1,374	-593	-191	8	-410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604	3,515	1,987	910	815	145	407	263
기타 사업서비스	-10,410	-12,222	-7,585	-2,662	-2,020	-546	-362	-1,113
개인·문화·여가	184	783	1,182	285	189	42	84	63
정부	-629	-658	-506	-118	-96	-2	-15	-80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여행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약 4억 6,000만 달러 증가
 - 3월 이후 본격적인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일반여행을 중심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일반여행지급 규모는 올해 4월 16억 9,000만 달러, 5월 20억 달러, 6월 22억 5,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일반여행수입은 4월 13억 4,000만 달러에서 6월에는 11억 7,0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
- 지난달 최근 2년 내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던 건설수지는 흑자 규모가 2억 4,000만 달러 이상 감소
 - 이러한 큰 폭의 흑자 감소는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난달 소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4억 달러 이상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분기별로도 1분기 대비 2분기 적자폭이 약 7억 달러 확대
 - 6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전환은 사용료지급이 2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지만, 사용료수입이 6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에 기인
 - 특히, 사용료수입 중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사용료가 4억 달러 이상,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수입이 2억 달러 이상 감소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약 1억 4,000만 달러 감소
 - 통신서비스수지, 정보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컴퓨터서비스수지의 흑자가 1억 8,000만 달러 이상 감소하며 흑자폭 감소 주도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지난달에 비해 적자 규모가 7억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월 대비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분 약 17억 달러의 약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문별로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 지난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4억 5,000만 달러 이상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연구개발서비스수지도 적자 규모가 2억 달러 이상 증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6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6% 감소
 - 제주(7.1%), 강원(4.8%), 전남(3.0%)은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기(-14.0), 부산(-9.1%), 경북(-6.0%)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국		8.2	1.4	1.4	-6.4	-9.7	-7.4	-7.6	-9.1	-7.6	-5.6
수도권	서울	9.1	-2.0	-4.7	-10.5	-13.3	-6.5	-18.9	-9.2	-8.1	-2.1
	인천	13.2	1.0	11.3	4.8	3.6	-1.9	4.4	2.4	-7.2	-0.8
	경기	14.3	4.1	2.5	-10.5	-23.4	-16.2	-20.4	-18.7	-16.2	-14.0
충청권	대전	4.2	-1.4	-1.4	-1.4	-2.5	-6.1	-7.6	-6.5	-7.3	-4.6
	세종	10.4	3.3	0.9	3.4	-5.2	2.3	-5.6	-1.2	1.7	6.4
	충북	14.4	-0.8	-3.6	-13.9	-11.6	-7.9	-15.7	-10.4	-9.6	-3.8
	충남	12.0	-0.2	-2.2	-1.7	-6.0	-3.1	-4.8	-6.2	-3.1	-0.2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호남권	광주	7.3	3.2	10.8	-2.6	2.8	-3.6	4.2	-0.6	-6.2	-3.8
	전북	7.8	2.9	6.8	0.3	-3.4	-2.6	1.0	-1.2	-4.9	-1.4
	전남	8.0	-2.9	-3.9	-11.2	-3.5	-2.5	1.2	-5.8	-4.5	3.0
대경권	대구	11.5	5.0	8.0	5.9	5.2	-1.4	4.6	-0.5	-2.6	-1.2
	경북	4.8	-1.4	3.5	-6.0	-0.1	-5.7	-2.8	-3.7	-7.3	-6.0
동남권	부산	2.4	9.7	15.9	7.7	-1.3	-8.5	-4.7	-5.7	-10.8	-9.1
	울산	6.6	-1.0	-3.0	-3.8	-1.7	-2.6	3.7	-2.8	-3.0	-2.1
	경남	3.9	5.7	6.3	5.4	2.8	-2.5	3.2	-6.1	-2.0	0.5
강원권		1.7	5.7	6.8	4.9	8.2	1.6	4.8	-0.2	0.3	4.8
제주권		5.4	6.7	5.7	4.9	0.5	3.1	-0.2	0.2	2.0	7.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이며, 2020=100.

(2) 고용

● 6월 전국 취업자 수는 2,881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2% 증가

- 전년동월비 경북(-0.5%), 경기(-0.4%)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세종(6.0%), 충남(3.8%), 대구(3.7%)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국		27,273 (1.4)	28,089 (3.0)	28,425 (2.8)	28,216 (2.2)	27,767 (1.5)	27,767 (-2.0)	28,223 (1.7)	28,432 (1.3)	28,835 (1.2)	28,812 (1.2)
수도권	서울	5,055 (0.1)	5,113 (1.1)	5,133 (1.1)	5,127 (0.5)	5,096 (0.7)	5,096 (-0.7)	5,144 (1.3)	5,147 (0.5)	5,220 (1.5)	5,220 (1.6)
	인천	1,563 (0.2)	1,614 (3.3)	1,639 (4.1)	1,641 (4.5)	1,613 (3.3)	1,613 (-0.1)	1,622 (2.6)	1,647 (3.6)	1,669 (3.0)	1,674 (2.6)
	경기	7,150 (3.5)	7,597 (6.3)	7,694 (6.1)	7,606 (3.6)	7,476 (1.1)	7,476 (-2.9)	7,570 (1.2)	7,610 (0.1)	7,752 (0.2)	7,722 (-0.4)

(계속)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충청권	대전	785 (0.6)	794 (1.1)	797 (0.0)	805 (1.1)	794 (1.4)	794 (0.6)	795 (1.3)	795 (1.0)	801 (1.0)	804 (2.2)
	세종	185 (2.8)	197 (6.5)	201 (6.3)	202 (9.2)	203 (8.6)	203 (2.0)	207 (6.7)	210 (7.1)	212 (5.5)	213 (6.0)
	충북	897 (0.8)	926 (3.2)	938 (3.1)	930 (1.8)	908 (1.3)	908 (-3.4)	945 (2.9)	949 (2.3)	955 (1.4)	954 (0.6)
	충남	1,193 (1.4)	1,226 (2.8)	1,267 (2.9)	1,245 (3.0)	1,178 (2.4)	1,178 (-5.1)	1,223 (2.2)	1,255 (2.8)	1,281 (2.6)	1,299 (3.8)
호남권	광주	745 (-0.4)	750 (0.7)	754 (0.4)	757 (2.3)	759 (2.6)	759 (1.3)	766 (2.1)	770 (3.5)	766 (1.9)	774 (3.2)
	전북	953 (2.3)	968 (1.6)	991 (2.2)	961 (0.6)	954 (2.1)	954 (-3.2)	969 (2.3)	980 (0.4)	997 (0.6)	993 (0.3)
	전남	985 (1.1)	1,010 (2.5)	1,021 (2.0)	1,016 (2.0)	1,003 (2.2)	1,003 (-2.1)	1,027 (3.3)	1,035 (2.2)	1,046 (0.9)	1,041 (2.0)
대경권	대구	1,217 (2.8)	1,228 (0.9)	1,239 (0.6)	1,226 (0.1)	1,220 (0.4)	1,220 (-1.1)	1,241 (1.2)	1,236 (0.8)	1,284 (3.5)	1,276 (3.7)
	경북	1,410 (-0.6)	1,462 (3.7)	1,486 (3.3)	1,464 (2.5)	1,426 (1.5)	1,426 (-4.4)	1,464 (1.2)	1,492 (1.4)	1,504 (-0.1)	1,493 (-0.5)
동남권	부산	1,657 (1.0)	1,679 (1.3)	1,696 (0.8)	1,692 (2.0)	1,680 (2.1)	1,680 (-0.1)	1,698 (2.6)	1,695 (1.9)	1,700 (0.5)	1,695 (0.5)
	울산	555 (-0.9)	566 (2.0)	572 (2.5)	571 (2.0)	564 (2.4)	564 (-0.9)	570 (2.3)	572 (2.0)	574 (0.2)	577 (0.9)
	경남	1,732 (0.2)	1,740 (0.5)	1,744 (-0.9)	1,740 (0.9)	1,715 (0.2)	1,715 (-2.9)	1,758 (0.5)	1,781 (1.0)	1,795 (1.5)	1,801 (1.9)
강원권		809 (1.8)	818 (1.1)	848 (0.8)	820 (0.0)	786 (2.7)	786 (-6.2)	833 (4.6)	861 (4.2)	878 (4.2)	875 (3.6)
제주권		383 (1.3)	402 (5.0)	404 (6.3)	413 (6.2)	392 (-0.3)	392 (-1.3)	393 (-1.0)	398 (1.3)	402 (1.8)	403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0% 감소한 542억 달러를 기록

- 전월에 이어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경남(46.1%), 경북(9.1%), 부산(5.4%)은 전년동월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세종(-30.9%), 전남(-28.2%), 충남(-18.3%) 등은 상대적으로 큰 감소를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전국		25.7	6.1	5.8	-10.0	-12.7	-12.0	-13.9	-14.5	-15.4	-6.0
수도권	서울	28.5	-2.4	-3.3	-12.9	-6.7	-3.0	-1.0	-3.8	-4.3	-0.8
	인천	25.7	14.5	23.4	-9.3	-5.4	5.8	-6.7	3.9	10.9	3.0
	경기	19.7	-0.3	-2.0	-16.4	-18.0	-15.9	-17.4	-20.5	-16.5	-10.9
충청권	대전	-1.3	-5.4	-8.9	-18.3	-13.2	-11.7	-15.5	-9.9	-24.4	2.8
	세종	17.8	5.8	5.7	-15.4	-34.5	-31.7	-36.2	-30.9	-33.3	-30.9
	충북	15.7	12.7	15.2	-1.0	-8.0	-16.9	-12.8	-13.7	-18.9	-18.0
	충남	30.9	3.2	-3.8	-20.6	-35.4	-31.0	-31.8	-39.2	-35.2	-18.3
호남권	광주	20.6	8.1	19.0	-1.6	5.8	-3.4	5.2	-9.7	-3.9	3.8
	전북	33.9	5.1	2.4	-11.2	-14.3	-8.0	-13.0	-2.1	-12.1	-9.9
	전남	59.8	14.2	13.6	-13.3	-17.1	-32.7	-18.3	-19.4	-44.3	-28.2
대경권	대구	26.6	34.1	46.5	28.1	27.6	12.9	31.8	17.1	16.8	5.1
	경북	19.5	5.8	-1.1	-8.7	-5.2	-1.2	-19.9	-12.8	2.6	9.1
동남권	부산	30.9	9.3	7.8	-6.9	-6.7	-5.2	0.8	-16.5	-1.9	5.4
	울산	32.4	21.3	25.8	8.9	0.5	-11.2	-5.2	-11.7	-16.0	-4.9
	경남	9.4	-7.2	-1.4	-5.6	-1.8	25.1	-7.2	28.8	4.4	46.1
강원권		34.9	0.8	-11.7	-12.4	-15.9	-6.9	-18.6	-22.5	4.4	0.9
제주권		47.1	-13.6	-31.0	-18.5	-24.1	-22.0	-27.3	-25.0	-23.5	-17.6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 생산 감소(-2.1%), 고용 증가(1.6%), 수출 소폭 감소(-0.8%)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9.2%), 식료품(15.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및 모피제품(-14.2%)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6.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1%)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17.4%), 비누치약 및 화장품(5.4%)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합성 수지(-17.1%)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소폭 감소

□ 인천

- 생산 소폭 감소(-0.8%),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3.0%)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8.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7.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3.8%)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 소폭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2%)의 고용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26.4%)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54.1%), 농약 및 의약품(13.2%)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경기

- 생산 감소(-14.0%), 고용 소폭 감소(-0.4%), 수출 감소(-10.9%)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0.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8.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1.7%) 등의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6	-0.1	3.9	-9.8	-9.6	-19.0	-11.2	-24.0	-17.3	-14.2
		전자부품 외	9.0	-3.9	-2.0	1.8	-11.3	18.5	-14.3	58.3	-26.0	29.2
		식료품	-2.3	4.5	4.9	5.2	17.8	21.8	16.4	42.7	8.2	15.0
	인천	기계 및 장비	62.9	-12.3	50.3	16.8	15.0	-4.6	24.3	28.3	-22.7	-7.0
		전자부품 외	5.4	14.5	13.8	10.8	20.1	11.1	20.9	8.3	-2.2	28.1
		의약품 외	26.2	14.9	24.0	-2.6	-14.6	-12.1	-21.3	-20.7	-10.8	-3.8
	경기	전자부품 외	23.3	7.8	2.6	-19.8	-37.8	-24.1	-31.7	-28.2	-23.8	-20.7
		기계 및 장비	14.2	3.7	10.0	13.7	-12.5	-15.1	-14.2	-11.6	-15.1	-18.3
		고무 및 플라스틱	0.6	-3.6	-4.1	-6.2	-9.7	-9.7	-6.1	-13.6	-13.0	-1.7
고 용	서울	농림·어업	5 (-28.6)	6 (20.0)	7 (133.3)	6 (50.0)	5 (25.0)	5 (-28.6)	5 (25.0)	5 (-28.6)	5 (-28.6)	6 (-14.3)
		제조업	442 (-1.1)	450 (1.8)	457 (4.3)	440 (-0.5)	454 (0.0)	454 (1.1)	456 (-0.2)	452 (-1.1)	473 (6.5)	475 (6.7)
		SOC·서비스	4,609 (0.3)	4,658 (1.1)	4,670 (0.7)	4,681 (0.5)	4,637 (0.7)	4,637 (-0.9)	4,683 (1.4)	4,690 (0.8)	4,742 (1.0)	4,738 (1.1)
	인천	농림·어업	9 (-35.7)	2 (-77.8)	2 (-81.8)	2 (-50.0)	2 (100.0)	2 (0.0)	2 (100.0)	3 (50.0)	3 (0.0)	3 (50.0)
		제조업	312 (-3.7)	322 (3.2)	322 (2.5)	321 (0.3)	308 (-4.9)	308 (-4.6)	311 (-4.3)	308 (-6.1)	318 (-1.9)	317 (0.0)
		SOC·서비스	1,241 (1.6)	1,289 (3.9)	1,314 (5.2)	1,318 (5.8)	1,302 (5.4)	1,302 (1.1)	1,309 (4.4)	1,336 (6.1)	1,348 (4.3)	1,354 (3.2)
	경기	농림·어업	107 (0.0)	131 (22.4)	162 (30.6)	127 (11.4)	92 (4.5)	92 (-37.0)	132 (30.7)	160 (29.0)	173 (12.3)	171 (7.5)
		제조업	1,344 (4.8)	1,468 (9.2)	1,489 (13.2)	1,483 (10.5)	1,445 (1.5)	1,445 (-2.2)	1,455 (0.0)	1,424 (-3.6)	1,431 (-3.2)	1,440 (-2.5)
		SOC·서비스	5,699 (3.3)	5,999 (5.3)	6,043 (3.9)	5,995 (1.9)	5,939 (1.0)	5,939 (-2.2)	5,983 (0.9)	6,026 (0.5)	6,147 (0.7)	6,109 (-0.2)
수 출	서울		68,538 (28.5)	66,904 (-2.4)	16,437 (-3.3)	15,370 (-12.9)	16,203 (-6.7)	17,210 (-3.0)	6,015 (-1.0)	5,541 (-3.8)	5,854 (-4.3)	5,815 (-0.8)
	인천		47,395 (25.7)	54,309 (14.6)	14,726 (23.4)	13,327 (-9.3)	12,454 (-5.4)	13,810 (5.8)	4,596 (-6.7)	4,226 (3.9)	4,707 (10.9)	4,877 (3.0)
	경기		137,832 (19.7)	137,460 (-0.3)	34,593 (-2.0)	31,111 (-16.4)	29,062 (-18.0)	30,485 (-15.9)	10,900 (-17.4)	9,361 (-20.5)	10,270 (-16.5)	10,854 (-10.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7.5%)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2%)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감소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81.6%)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47.7%), 반도체제조용 장비(-8.0%)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2) 충청권

□ 대전

- 생산 감소(-4.6%),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2.8%)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21.5%)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업(-1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5%)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1.3%)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11.1%)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펌프(15.8%) 등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세종

- 생산 증가(6.4%), 고용 증가(6.0%), 수출 감소(-30.9%)
 - 주요 업종인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41.4%)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조업(17.9%), 전자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2%)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7.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1%)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농약 및 의약품(18.4%)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구부품(-45.9%), 무선통신기기(-49.1%)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산	대전	담배 제조업	-2.6	-1.8	11.4	2.1	18.8	2.2	21.6	13.7	6.8	-11.2
		화학제품 외	-10.0	-21.2	-39.6	-27.7	-42.1	-8.8	-41.6	-11.9	-11.7	-1.5
		기계 및 장비	1.2	8.1	21.2	12.6	0.1	11.7	-16.6	8.1	5.7	21.5
	세종	전자부품 외	30.8	7.6	9.0	-20.4	-47.3	-41.9	-46.3	-42.7	-41.5	-41.4
		화학제품 외	3.8	3.4	-18.1	24.1	-16.8	-1.6	-12.2	-4.4	-8.2	9.2
		식료품	2.5	-1.5	11.7	6.2	9.3	13.9	10.8	7.9	16.0	17.9
	충북	전자부품 외	32.4	-5.1	-14.5	-44.5	-35.2	-13.8	-38.8	-17.7	-16.7	-7.0
		화학제품 외	19.3	-38.1	-52.3	-29.3	-31.4	-14.0	-42.4	-20.3	-18.4	-2.1
		식료품	4.5	2.7	4.1	-4.5	-9.1	-4.1	-11.6	-10.9	-1.9	0.6
	충남	전자부품 외	27.2	-7.9	-18.0	-12.6	-25.5	-15.8	-24.3	-21.7	-9.0	-1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4.8	7.9	26.2	13.6	28.3	14.9	20.7	15.7	16.1	13.0
		화학제품 외	9.3	-4.0	-9.5	-11.1	-10.4	-16.7	-9.5	-6.4	-26.8	-16.3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0.0)	9 (12.5)	9 (12.5)	8 (-20.0)	7 (-22.2)	7 (-22.2)	8 (-11.1)	7 (-12.5)	8 (-20.0)	8 (-11.1)
		제조업	91 (-13.3)	78 (-14.3)	76 (-16.5)	78 (-9.3)	77 (-3.8)	77 (-1.3)	79 (0.0)	80 (5.3)	77 (-3.8)	75 (-1.3)
		SOC·서비스	684 (2.5)	707 (3.4)	712 (2.2)	720 (3.0)	711 (2.4)	711 (1.3)	708 (1.6)	707 (0.9)	715 (1.7)	720 (2.7)
	세종	농림·어업	9 (12.5)	8 (-11.1)	8 (-27.3)	7 (-12.5)	6 (0.0)	6 (-40.0)	8 (14.3)	9 (0.0)	8 (-20.0)	9 (-10.0)
		제조업	24 (0.0)	28 (16.7)	29 (20.8)	30 (20.0)	29 (11.5)	29 (3.6)	28 (3.7)	30 (11.1)	30 (3.4)	30 (7.1)
		SOC·서비스	153 (3.4)	161 (5.2)	164 (6.5)	164 (7.9)	169 (9.0)	169 (4.3)	172 (8.2)	172 (8.2)	174 (7.4)	174 (6.1)
	충북	농림·어업	96 (3.2)	101 (5.2)	109 (4.8)	97 (-4.0)	89 (-4.3)	89 (-16.0)	104 (8.3)	109 (6.9)	117 (6.4)	119 (11.2)
		제조업	212 (5.5)	198 (-6.6)	194 (-6.3)	189 (-10.4)	189 (-10.4)	189 (-4.5)	193 (-8.5)	197 (-0.5)	202 (2.5)	203 (2.5)
		SOC·서비스	588 (-1.3)	626 (6.5)	635 (6.0)	644 (7.2)	629 (6.6)	629 (-0.8)	647 (6.1)	643 (2.6)	635 (0.2)	632 (-1.6)
	충남	농림·어업	177 (9.3)	179 (1.1)	205 (-0.5)	161 (-9.6)	118 (-15.1)	118 (-44.1)	148 (-12.9)	174 (-11.7)	195 (-11.0)	198 (-8.8)
		제조업	257 (2.8)	252 (-1.9)	254 (1.6)	258 (-1.5)	266 (5.6)	266 (9.9)	270 (8.4)	271 (13.4)	283 (18.4)	281 (13.3)
		SOC·서비스	760 (-0.5)	795 (4.6)	808 (4.3)	825 (7.3)	795 (4.6)	795 (0.9)	804 (3.5)	809 (3.1)	803 (1.4)	819 (4.1)
수출	대전		4,953 (-1.3)	4,686 (-5.4)	1,131 (-8.9)	1,028 (-18.3)	1,069 (-13.2)	1,144 (-11.7)	372 (-15.5)	364 (-9.9)	378 (-24.4)	402 (2.8)
	세종		1,532 (17.8)	1,621 (5.8)	410 (5.7)	356 (-15.4)	273 (-34.5)	299 (-31.7)	97 (-36.2)	96 (-30.9)	100 (-33.3)	103 (-30.9)
	충북		28,766 (15.7)	32,428 (12.7)	8,731 (15.2)	7,177 (-1.0)	7,456 (-8.0)	6,978 (-16.9)	2,682 (-12.8)	2,291 (-13.7)	2,340 (-18.9)	2,347 (-18.0)
	충남		104,122 (30.9)	107,489 (3.2)	27,118 (-3.8)	23,107 (-20.6)	18,701 (-35.4)	19,540 (-31.0)	7,408 (-31.8)	5,758 (-39.2)	6,205 (-35.2)	7,577 (-18.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충북

- 생산 감소(-3.8%), 고용 소폭 증가(0.6%), 수출 감소(-18.0%)
 - 지역 주요 업종인 식료품 제조업(0.6%)의 생산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1%)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2.5%)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6%)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목인 건전지 및 축전지(2,696.8%)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36.2%), 정밀화학원료(-8.0%)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 충남

- 생산 소폭 감소(-0.2%), 고용 증가(3.8%), 수출 감소(-18.3%)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3.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6.2%)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소폭 감소
 - 농림·어업(-8.8%)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1%)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력수출품 중 석유제품(-21.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1.8%), 반도체(-7.5%) 모두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감소

(3) 호남권

□ 광주

- 생산 감소(-3.8%), 고용 증가(3.2%), 수출 증가(3.8%)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3.3%)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장비(-15.9%), 기타 기계 및 장비(-22.4%)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	9.7	21.7	11.8	23.9	18.8	42.4	27.4	16.3	13.3
		전기장비	15.7	-7.6	-23.0	-22.2	-23.5	-24.8	-18.7	-26.4	-30.9	-15.9
		기계 및 장비	10.6	1.0	12.1	-5.4	3.7	-12.2	-4.9	-1.3	-10.8	-22.4
	전 북	식료품	-1.2	2.9	6.2	-3.0	-6.5	-7.4	-6.7	-7.6	-10.2	-4.3
		화학제품 외	-1.5	-4.3	-1.7	-4.5	-3.7	-13.4	-7.3	-5.4	-15.8	-19.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2	14.2	27.6	16.1	2.9	12.7	20.8	34.9	4.0	4.8
	전 남	화학제품 외	11.5	-6.5	-8.9	-21.5	-8.6	-4.9	-5.4	-13.1	-4.7	4.5
		1차 금속 제조업	7.6	-2.9	-1.9	-2.2	-0.4	1.0	6.8	1.4	-2.3	4.0
		석유정제품	11.1	3.8	2.5	3.3	1.8	-1.3	-0.9	-10.8	2.5	3.6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2 (-25.0)	15 (25.0)	16 (33.3)	15 (15.4)	18 (38.5)	18 (12.5)	18 (38.5)	19 (35.7)	21 (31.3)	22 (37.5)
		제조업	100 (-6.5)	104 (4.0)	105 (9.4)	102 (1.0)	100 (-2.9)	100 (-6.5)	102 (-2.9)	104 (-3.7)	105 (-1.9)	104 (-2.8)
		SOC·서비스	632 (1.1)	631 (-0.2)	634 (-1.6)	639 (1.9)	641 (2.7)	641 (2.4)	645 (2.1)	646 (3.7)	640 (1.7)	648 (3.3)
	전 북	농림·어업	169 (-5.6)	172 (1.8)	186 (8.1)	170 (3.7)	151 (0.0)	151 (-15.6)	157 (1.3)	168 (-3.4)	179 (-0.6)	179 (-1.6)
		제조업	120 (-2.4)	119 (-0.8)	117 (0.9)	124 (0.8)	123 (1.7)	123 (8.8)	122 (2.5)	126 (14.5)	128 (13.3)	127 (8.5)
		SOC·서비스	663 (5.2)	677 (2.1)	688 (1.0)	667 (-0.1)	679 (2.6)	679 (-2.0)	689 (2.5)	686 (-0.6)	689 (-1.1)	687 (-0.4)
	전 남	농림·어업	221 (7.8)	234 (5.9)	241 (5.2)	238 (3.5)	218 (-1.8)	218 (-7.2)	219 (-4.4)	223 (-4.3)	233 (-1.7)	233 (-1.3)
		제조업	97 (-8.5)	99 (2.1)	99 (1.0)	95 (-3.1)	102 (2.0)	102 (2.0)	100 (0.0)	94 (-6.0)	99 (-1.0)	103 (3.0)
		SOC·서비스	667 (0.8)	678 (1.6)	680 (0.9)	683 (2.2)	684 (3.8)	684 (-0.6)	709 (6.5)	718 (5.4)	714 (2.1)	704 (2.8)
수 출	광주		16,604 (20.6)	17,946 (8.1)	4,703 (19.0)	4,359 (-1.6)	4,426 (5.8)	4,540 (-3.4)	1,624 (5.2)	1,429 (-9.7)	1,554 (-3.9)	1,557 (3.8)
	전북		7,820 (33.9)	8,223 (5.2)	2,013 (2.4)	1,862 (-11.2)	1,884 (-14.3)	1,973 (-8.0)	672 (-13.0)	709 (-2.1)	652 (-12.1)	612 (-9.9)
	전남		43,294 (59.8)	49,438 (14.2)	13,161 (13.6)	10,879 (-13.3)	9,954 (-17.1)	9,005 (-32.7)	3,404 (-18.3)	2,602 (-19.4)	3,097 (-44.3)	3,306 (-28.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제조업(-2.8%)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37.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3%)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8.5%)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31.8%), 냉장고(9.6%)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전북

- 생산 감소(-1.4%), 고용 소폭 증가(0.3%), 수출 감소(-9.9%)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4.8%)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4%), 식료품 제조업(-4.3%)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제조업(8.5%)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건설광산기계(11.6%)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약 및 의약품(-1.2%), 동제품(-16.6%), 농기계(-20.2%)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남

- 생산 증가(3.0%), 고용 증가(2.0%), 수출 감소(-28.2%)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4.5%), 1차 금속 제조업(4.0%), 석유정제품(3.6%)의 생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1.3%)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8%)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80.6%)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38.8%), 합성수지(-14.4%)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

(4) 대경권

□ 대구

- 생산 감소(-1.2%), 고용 증가(3.7%), 수출 증가(5.1%)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대 구	금속가공제품	7.2	-3.2	-3.8	0.1	2.7	3.8	1.8	9.3	10.5	-8.5
		기계 및 장비	31.1	11.0	9.8	14.7	14.0	-5.9	11.1	-2.9	-11.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7	9.0	15.0	15.3	11.2	14.8	10.9	11.0	13.2	20.2
	경 북	전자부품 외	7.3	-7.4	-2.5	-9.1	-0.9	-18.6	-21.4	-6.9	-26.5	-23.3
		1차 금속	1.8	-16.7	-21.0	-39.1	-13.2	-5.4	-7.6	0.1	-8.0	-7.7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16.9	22.4	27.4	23.3	16.2	30.7	14.4	18.0	16.0
고 용	대 구	농림·어업	15 (-51.6)	10 (-33.3)	11 (0.0)	10 (-9.1)	8 (0.0)	8 (-33.3)	11 (22.2)	9 (-18.2)	14 (0.0)	14 (40.0)
		제조업	239 (3.5)	240 (0.4)	244 (1.2)	240 (2.6)	240 (1.3)	240 (0.4)	239 (1.3)	241 (1.3)	243 (1.7)	246 (2.9)
		SOC·서비스	963 (4.3)	978 (1.6)	984 (0.5)	976 (-0.4)	972 (0.2)	972 (-1.0)	991 (0.9)	987 (1.1)	1,028 (4.0)	1,017 (3.6)
	경 북	농림·어업	274 (4.6)	280 (2.2)	292 (-0.3)	293 (8.1)	261 (4.8)	261 (-8.7)	279 (6.5)	295 (8.9)	309 (6.6)	304 (2.0)
		제조업	283 (-3.1)	293 (3.5)	296 (5.3)	280 (-5.1)	268 (-10.4)	268 (-10.1)	268 (-10.4)	263 (-12.0)	253 (-14.8)	258 (-13.4)
		SOC·서비스	853 (-1.2)	888 (4.1)	897 (3.8)	891 (3.4)	897 (4.8)	897 (-1.2)	917 (3.6)	935 (3.8)	942 (2.7)	932 (3.0)
수 출	대구		7,934 (26.6)	10,642 (34.1)	2,799 (46.5)	2,840 (28.1)	2,997 (27.6)	2,996 (12.9)	1,149 (31.8)	1,007 (17.1)	1,045 (16.8)	944 (5.1)
	경북		44,314 (19.5)	46,888 (5.8)	10,985 (-1.1)	11,497 (-8.7)	12,001 (-5.2)	11,601 (-1.2)	4,004 (-19.9)	3,792 (-12.8)	4,043 (2.6)	3,766 (9.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0.2%)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속가공제품(-8.5%), 기타 기계 및 장비(-3.0%)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 제조업(2.9%)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2.5%)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68.3%), 자동차 부품(6.2%) 모두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

□ 경북

- 생산 감소(-6.0%), 고용 소폭 감소(-0.5%), 수출 증가(9.1%)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6.0%)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3.3%), 1차 금속 제조업(-7.7%)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0%)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13.4%)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29.0%)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112.4%), 철강판(80.1%)의 수출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5) 동남권

□ 부산

- 생산 감소(-9.1%), 고용 소폭 증가(0.5%), 수출 증가(5.4%)
 - 주요 업종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3.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제조업(-9.7%), 기타 기계 및 장비(-1.6%) 등의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38.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1%)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철강판(-19.6%)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펌프(30.3%), 자동차(17.7%) 등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울산

- 생산 감소(-2.1%), 고용 소폭 증가(0.9%), 수출 감소(-4.9%)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2.5	4.5	4.8	3.3	10.4	-3.2	16.0	0.7	-8.7	-1.6
		금속 가공제품	-11.5	2.0	8.6	12.5	15.7	5.7	17.5	5.3	-0.5	13.1
		식료품	3.6	-0.8	-3.1	-8.2	-11.4	-13.5	-12.5	-18.7	-12.0	-9.7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	2.2	6.5	10.1	18.4	10.8	30.4	5.6	12.3	15.
		화학제품 외	6.9	-10.5	-17.4	-16.2	-13.3	-9.1	-12.4	-9.8	-8.5	-9.2
		석유정제품	-1.5	9.4	12.3	0.2	-5.5	-8.4	-4.2	-3.7	-1.4	-22.1
	경 남	기계 및 장비	9.9	4.1	5.1	8.4	0.5	-5.2	2.5	-7.7	-4.0	-4.0
		기타 운송장비	-12.7	18.6	19.3	13.3	8.3	8.8	7.2	0.2	10.2	16.1
		금속가공제품	-5.7	8.7	15.8	18.6	19.1	-1.2	25.3	-7.2	0.4	3.1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11 (57.1)	19 (72.7)	18 (50.0)	19 (35.7)	21 (16.7)	21 (5.0)	22 (15.8)	22 (4.8)	23 (9.5)	25 (38.9)
		제조업	240 (-5.9)	225 (-6.3)	222 (-6.3)	222 (-1.8)	221 (-2.2)	221 (-3.5)	219 (-3.5)	219 (-3.9)	217 (-6.5)	220 (-3.1)
		SOC·서비스	1,407 (2.1)	1,435 (2.0)	1,456 (1.6)	1,451 (2.2)	1,437 (2.5)	1,437 (0.3)	1,457 (3.4)	1,454 (2.8)	1,459 (1.5)	1,450 (0.6)
	울 산	농림·어업	6 (-14.3)	6 (0.0)	7 (0.0)	7 (40.0)	6 (20.0)	6 (0.0)	7 (75.0)	8 (60.0)	7 (16.7)	7 (0.0)
		제조업	163 (0.6)	168 (3.1)	172 (5.5)	181 (11.7)	178 (13.4)	178 (9.2)	177 (14.2)	176 (12.8)	179 (9.1)	181 (7.7)
		SOC·서비스	385 (-1.8)	392 (1.8)	394 (1.3)	384 (-2.0)	381 (-2.3)	381 (-5.0)	387 (-3.0)	388 (-3.2)	389 (-3.5)	389 (-2.3)
	경 남	농림·어업	203 (10.3)	220 (8.4)	238 (5.8)	214 (2.4)	195 (-0.5)	195 (-16.7)	207 (0.0)	214 (-3.6)	221 (-6.8)	222 (-8.6)
		제조업	377 (-5.5)	390 (3.4)	381 (3.0)	395 (4.8)	375 (-4.1)	375 (-4.8)	378 (-5.3)	369 (-9.3)	356 (-9.2)	354 (-7.6)
		SOC·서비스	1,151 (0.5)	1,130 (-1.8)	1,126 (-3.3)	1,131 (-0.6)	1,144 (1.7)	1,144 (0.5)	1,171 (2.4)	1,197 (5.6)	1,217 (6.8)	1,224 (7.3)
수 출	부산		14,816 (30.9)	16,192 (9.3)	4,117 (7.8)	3,858 (-6.9)	3,734 (-6.7)	3,996 (-5.2)	1,409 (0.8)	1,304 (-16.5)	1,394 (-1.9)	1,298 (5.4)
	울산		74,268 (32.4)	90,154 (21.4)	23,194 (25.8)	22,258 (8.9)	21,384 (0.5)	20,734 (-11.2)	7,229 (-5.2)	7,345 (-11.7)	6,850 (-16.0)	6,539 (-4.9)
	경남		39,262 (9.4)	36,429 (-7.2)	9,233 (-1.4)	9,336 (-5.6)	9,070 (-1.8)	10,790 (25.1)	3,153 (-7.2)	3,414 (28.8)	3,384 (4.4)	3,992 (46.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5.1%)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정제품(-22.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9.2%)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감소
- 제조업(7.7%)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3%)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46.9%), 자동차(38.9%)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55.7%), 동제품(-12.5%)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경남

- 생산 소폭 증가(0.5%), 고용 증가(1.9%), 수출 증가(46.1%)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16.1%), 금속가공제품(3.1%)의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4.0%)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소폭 증가에 그침.
 - 제조업(-7.6%)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3%)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주요 수출품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12.0%), 자동차(526.7%), 레일 및 철구조물(415.1%)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6) 강원·제주권

□ 강원

- 생산 증가(4.8%), 고용 증가(3.6%), 수출 증가(0.9%)
 - 대표 업종인 음료 제조업(13.6%), 비금속 광물제품(3.4%)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7.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9%), 농림·어업(1.1%)의 고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농산가공품(-3.3%)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5.2%), 전자응용기기(22.2%) 등의 수출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1.4	-1.6	-1.9	-3.1	-5.4	-3.0	1.6	-3.9	-7.9	3.4
		식료품	1.2	0.8	-1.6	-7.7	-8.3	-6.2	-4.5	-8.0	-8.6	-1.7
		음료	5.0	29.6	34.3	17.2	11.2	1.4	2.4	-4.0	-5.4	13.6
	제 주	음료	4.4	0.8	-5.6	1.0	6.3	-5.1	8.9	-6.2	-3.9	-5.1
		식료품	2.4	8.1	8.1	2.0	-4.0	-4.1	-12.7	-11.3	-3.3	3.0
		비금속 광물제품	4.0	1.4	12.2	-8.6	3.8	20.1	6.9	19.1	22.5	19.0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69 (-15.9)	72 (4.3)	88 (7.3)	64 (-11.1)	42 (-12.5)	42 (-52.3)	61 (1.7)	82 (1.2)	89 (-3.3)	93 (1.1)
		제조업	55 (-3.5)	54 (-1.8)	52 (-5.5)	53 (-5.4)	49 (-10.9)	49 (-9.3)	49 (-9.3)	52 (-1.9)	56 (3.7)	58 (7.4)
		SOC·서비스	678 (4.5)	686 (1.2)	703 (0.9)	699 (2.0)	692 (6.0)	692 (0.4)	718 (6.5)	724 (5.8)	728 (5.5)	720 (3.9)
	제 주	농림·어업	67 (-9.5)	63 (-6.0)	62 (0.0)	65 (-1.5)	54 (-12.9)	54 (-15.6)	52 (-17.5)	54 (-15.6)	50 (-23.1)	51 (-19.0)
		제조업	14 (16.7)	16 (14.3)	16 (6.7)	16 (-5.9)	16 (0.0)	16 (0.0)	15 (-11.8)	15 (0.0)	16 (6.7)	16 (0.0)
		SOC·서비스	302 (3.4)	323 (7.0)	326 (7.9)	333 (8.8)	322 (2.5)	322 (1.6)	326 (2.5)	329 (5.1)	336 (6.3)	337 (4.3)
수 출	강원		2,729 (34.9)	2,750 (0.8)	634 (-11.7)	630 (-12.4)	625 (-15.9)	692 (-6.9)	214 (-18.6)	217 (-22.5)	239 (4.4)	236 (0.9)
	제주		228 (47.1)	197 (-13.6)	40 (-31.0)	53 (-18.5)	41 (-24.1)	39 (-22.0)	16 (-27.3)	12 (-25.0)	13 (-23.5)	14 (-17.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제주

- 생산 증가(7.1%), 고용 소폭 증가(0.2%), 수출 감소(-17.6%)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5.1%)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광물제품(19.0%), 식료품 제조업(3.0%)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3%)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9.0%)의 고용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수출품 중 기호식품(22.5%)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류(-32.6%), 반도체(-17.4%)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